

C1
268.842
b 863.71

갈뱅의 인간이해와 기독교 교육

장로회신학대학 대학원



고신대학교



DM00001129

독교교육학과 기독교교육전공

이 종 찬

갈뱅의 인간이해와 기독교 교육

지도 임 창 복 교수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1987년 2월 일

장로회신학대학 대학원

기독교교육학과 기독교교육전공

이 중 찬

이종찬 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주심 _____

부심 _____

부심 _____

장로회신학대학 대학원

1987년 2월

謝 辭

본 논문을 작성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친절하게 지도
하여 주신 임 창복 교수님과 이 수영 교수님께 심심한 사의
를 표합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것을 허락해 주신 노량진교회에 깊은 감사
를 드립니다.

1987 년 1 월

이 종 찬

목 차

I. 서 론	1
A. 연구의 동기와 목적	1
B. 연구의 범위와 방법	8
II. 갈뱅의 인간이해	11
A. 피조물로서 창조 본래의 인간	14
1. 하나님의 형상	14
2. 인간창조의 목적	21
3. 창조된 인간의 능력	27
B. 타락후의 인간	29
1. 지각 (이성)의 우매함	32
2. 마음 (의지)의 부패	35
C.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	42
1. 하나님의 형상인 중보자 그리스도	44
2. 믿음을 통한 하나님 형상의 회복	47
a. 믿음의 근원	47
b. 믿음의 지식	48
c. 믿음의 본질	52
III. 갈뱅의 신학이 암시하는 기독교교육의 목적과 방법 ...	67
A. 기독교교육의 목적	69
1. 구원의 의미	70

✱ 2. 성화의 의미	71
3. 기독교교육의 구체적인 목표들	73
✓ B. 기독교교육의 방법	77
✓ 1. 성령의 역사	78
✓ 2. 말씀을 통한 교육	81
a. 성경말씀을 통한 교육	81
b. 설교말씀을 통한 교육	83
✓ 3. 성례전을 통한 교육	87
a. 세례	89
b. 성만찬	92
✓ 4. 생활을 통한 교육	94
a. 회개와 성화의 생활	94
b. 기도생활	96
c. 자기 부정의 생활	99
IV. 결론	103
참고문헌	108

I. 서론

A. 연구의 동기와 목적

“세계는 오늘날 여러 종류의 사악하고 불경건한 교리로 충만되어 있고 수 없이 많은 과오로 인해서 맹목적으로 되었고 꺾이나 심한 우상숭배 가운데 빠져 있다.”¹⁾ 고 깔뱅은 말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인간사회에서도 해결을 기다리고 있는 복잡한 문제들이 계속 꼬리를 물고 나타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간이해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 중에서도 기독교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데, 인간은 목적을 가진 존재이며 목적의식을 가지고 행동한다. 그 목적은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여 주며 또 인간행동에 박차를 가하는 힘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러므로 교육의 목적은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교육활동에 그 결과가 직접적

¹⁾ John Calvin, 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
(Ed.) by John T. McNeil. Trans. by Ford Lewis Battles. The
Westminster Press. Phil. L. C. C. Vol. XX. p. 1143.
IV-VII-24(이하 인용시는 J. Calvin, Inst. 로 함)

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2)

앞으로 연구할 낱뱁의 교육목적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우선 기독교 교육의 목적을 역사적으로 간략하게 고찰해 본다. 면 구약시대의 교육목적은 신정국가의 건실한 국민을 양성하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 버렸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것」 (잠 1 : 7) 이 교육의 목적이었다.” 3)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의 명령 (마 28 : 19-20) 에 따라서 교육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찾을수 있다. 이것은 세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①영혼구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②말씀교육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③생활훈련 (지키게 하라) 으로 요약할 수가 있다. 4)

이것은 사도 시대의 교육 뿐만 아니라 오늘의 교회들이 취하여야 할 것이며 성경적 원리라고 하겠다.

종교개혁 시대의 교육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2) 정정숙, 기독교교육 과정론 (서울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출판부, 1980), p.72.

3) Ibid.

4) Ibid.

종교적 인격 양성”에 두었다.⁵⁾

현대에 와서는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 여러가지 신학사상의 영향을 입게 되었는데, 이것은 신학 사상의 경향에 따라 교육철학이 결정되고 여기서 교육목적이 달라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목적의 변천은 그 시대의 신학 사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전통적 신학에서 기독교 교육은 본질적으로 계시의 사실에서 나온 독특하고, 신적 권위가 있는 구원의 메시지 전달에 관심을 갖는다. 그래서 카톨릭의 대표적 이론가인 요한네스 호핑거 (Johannes Hofinger)는 간단하게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기독교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말한다.⁶⁾ 그러나 단순한 전달이 아니라 “메시지의 정확한 전달은 결과적으로 학생에게 종교적 삶을 가져다 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신앙지식을 전달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참으로 자기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삶을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야 한다. 기독교적 지식 그 자체는 우리 교육의 참된 목적이 아니다. 그것은 수단에 불과하다. “종교교

5) Ibid., p.73.

6) Johannes Hofinger, The Art of Teaching Christian Doctrine. p.65. H.W. Burgess, An Invitation to Religious Education. 오태용역, 기독교교육론 (정경사, 1984), p.49. 재인용.

육의 목적은 종교적인 삶이다.” 7)

전통적 신학적 관점에서 기독교 교육목적의 범위는 이 세상에서의 바른 삶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한 참여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한다. 8)

그러나, 신정통 신학적 기독교 교육의 목표는 전형적으로 교회와 그 단체 생활에 초점을 둔다. 대표적인 신정통 신학적 이론가인 랜돌프 그럼프 밀러 (Randolph Crump Miller) 는 주장하기를 “기독교 교육의 주 목적은 역시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만남이 있고 환경과의 유기적 관계가 있는 다이나믹한 기독 공동체 내에서 사람들 간에 안전한 관계가 확립됨으로 인해 인간을 온전하게 (Whole) 하는 것” 이라고 말한다. 9)

제임스 마이클 리 (James Michael Lee) 는 기독교 교육의 궁극적 목적을 “모든 학생은 이 현세에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과 봉사로 특징을 이루는 삶을 살고 내세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을 누리야 한다.” 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기독교 교육 사상가들 대다수의 의견에 동의한다. 그렇지만 “이 일반적으로 수납된 목적이 너무 범위가 넓으므로 인해서 현행의 기독

7) Johannes Hofinger, The Art of Teaching Christian Doctrine, p. 17. 재인용. Ibid., pp. 51 - 52.

8) Ibid., p. 53.

9) Ibid., p. 133. Randolph Crump Miller, Education for Christian Living, 1963, p. 55. 재인용.

교 교육에 실제적으로 도움을 별로 주지 못한다.” 고 그는 주장한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의 제일가는 가장 가까운 목적은 “기독교적인 이해와 행동과 사랑을 동등하게 자기의 개인적 경험에다 융합시키는것” 으로 리는 주장한다.¹⁰⁾

기독교 교육의 목적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근원이 되는 것은 성서에 제시된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궁극적 목적이다. 이에 대하여 두 가지의 중요한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성취하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둘째,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것일까?

여기서 발견되는 개개인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를 닮아 가도록 변화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처음 의도대로 창조된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성품)을 닮아 간다.” 는 것이다.¹¹⁾

그러나, “사람이 자기의 본체를 알기란 매우 어려운

10) Ibid., p.169. James Michael Lee, The Flow of Religious Instruction, p.11. 재인용.

11) 한미라, “기독교 교육의 목적으로서의 구원”, 월간목회, 1986. 9월호, p.81.

일이다.”¹²⁾ 인간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은 역사와 함께 과거에도 물어졌고, 현재에도 묻고 있으며, 미래에도 계속적으로 던져질 질문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야하는 것이다. 그 대답은 보는 입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

여기서 본 연구자는 그 모든 입장을 다 논하려는 것이 아니라 갈뱅의 인간이해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기독교 교육의 목적과 방법을 알아 보려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특별히 갈뱅의 인간이해를 연구하려는 이유는 종교개혁 이후 장 갈뱅만큼 전 세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끼친 사람은 없을 것이며,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갈뱅을 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은 그의 신학이 프로테스탄트 신학의 모체가 되기 때문이다.¹³⁾

또, 한국 교회의 대부분이 갈뱅의 신학사상 위에서 출발하였고, 갈뱅의 영향을 받아 왔으며, 갈뱅과 그의 신학을 종종 언급하면서도 갈뱅에 대한 연구가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며, 한국 교회의 신학적 근거를 갈뱅의 복음적인 신학에 두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¹²⁾ 이종성, 신학적 인간학 (서울: 대학 기독교 출판사, 1979), p. 16.

¹³⁾ 정성구, “서언”, 칼빈의 신학서론, 칼빈총서 I (서울: 기독교 문화사, 1986), p. 8.

본래 기독교 인간관이라는 것은 “인간을 인간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인간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것”¹⁴⁾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인간을 논할 수 없다.”고 하는 기독교 인간관의 이유는 바로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까닭이다.¹⁵⁾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논할 수 없다. 올바른 하나님 인식이 올바른 인간인식을 가져오기 때문에 기독교 인간이해의 연구는 신론 및 기독교론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따라서 갈뱅의 인간이해에서 이러한 문제의 해답을 찾아 볼 수 있다.

성서에서도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¹⁶⁾라고 묻고 있는데, 여기서도 발견되듯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로 등장하고 있다. 갈뱅이 평생 추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었으며, 또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인간이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는 성서와 일치점을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내용으로 가르쳐야 하며 또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방법을 갈뱅의 신학에서 연구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14) Institutes, I - i - 1.

15) Ibid., I - XV - 1.

16) 시편 8 : 4.

B. 연구의 범위와 방법

갈뱅에 관한 자료는 비교적 많은 편이다. 鄭正淑교수가 쓴 「종교개혁자들의 교육사상」이란 책 참고 문헌에서 밝히는 자료만 해도 갈뱅에 관한 외국의 자료가 61페이지에 달하고, 한국 자료만도 10페이지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갈뱅의 인간이해나 그의 교육과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 논문은 참고 문헌에 나타나 있듯이 그렇게 많지 못한 편이다.

석사학위 이상의 논문에서 갈뱅의 인간이해에 관련된 연구는 1974년 2월 장로회 신학대학 대학원에서 오창학이 쓴 “칼빈신학에 있어서의 인간회복”의 4편, 그리고 갈뱅의 교육에 관련된 연구는 1978년 장로회 신학대학 대학원에서 강용원이 쓴 “칼빈의 교육활동과 그 의의에 관한 연구”의 9편의 논문이 있었다. 이러한 선행연구 논문들은 대부분 갈뱅의 교육적인 활동에 관한 논문이거나 교육활동을 통해 드러나는 교육이론에 관한 연구일 뿐, 그의 깊은 신학사상과 교육을 연결시켜 고찰한 논문은 1980년 연세대 교육 대학원에서 장화선이 쓴 “John Calvin의 인간이해와 교육” 한편이 있다. 장화선은 이 논문에서 교육학의 인간학적인 접근인 「교육 인간학의 방법론」에 기초하여 갈뱅의 인간이해를 고찰하고, 이 인간이해의 바

탕으로 교육적인 행위에 대한 관심을 고찰」하였다.¹⁷⁾

그런데 또, 비슷한 제목의 논문을 쓰려는 동기는 갈뱅의 인간이해를 고찰하려는 면에 있어서는 비슷한 점이 있으나 장화선이 인간이해를 바탕으로 “교육적인 행위에 대한 관심을 고찰” 했다면, 본 연구자는 갈뱅의 신학이 암시하는 기독교 교육의 목적과 방법을 논하려고 하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에 있다. 즉, 무엇을 내용으로 가르쳐야 하며, 무슨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라는 질문의 대답을 본 연구는 갈뱅신학을 통하여 발견하려는 것이다.

본 연구는 논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갈뱅의 인간이해를 첫번째 부분으로 삼고 그 내용을 A. 피조물로서 창조 본래의 인간 B. 타락후의 인간 C.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인간을 다루고, 두번째 부분에서는 갈뱅의 인간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기독교 교육의 목적과 방법을 다룬다.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전적으로 문헌연구에 의존한다. 갈뱅의 인간이해를 연구하는 데는 그의 불후의 명작인 「기독교 강요」(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와 그의 초인간적인 노력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 「성서주석」과 「신학논문집」(Theological Treatises)을 주로 참고하고, 그 외에

17) 장화선, “John Calvin의 인간이해와 교육”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1980), p.3.

칼뱅과 관계된 여러 문헌을 참고하도록 한다.

그러나, 모든 자료 중에서도 그의 사상을 가장 정확하게 조직적으로 표현한 것이 「기독교 강요」¹⁸⁾이므로 본 연구자는 주로 이 기독교 강요를 중심으로 그에 관한 연구를 하려고 한다.

¹⁸⁾ 이종성, 칼빈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78), p. 70.

II. 갈뱅의 인간이해

갈뱅의 철학적 인간이해에서 우리는 르네상스 인문주의자들의 영향을 찾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갈뱅이 르네상스 인문주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다.¹⁹⁾ 갈뱅이 “인문주의자로서 학문을 연구하고 교양을 쌓기 시작한 것은 법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오르레앙 대학에 입학한 후였다.”²⁰⁾ 그러나 갈뱅이 “인문주의자로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은 1532년 「세네카의 관용론」을 집필한 후였다.”²¹⁾

그리고 갈뱅이 “회심하고 나서 쓴 「독교 강요」도 수사학적 노력의 산물이었다”고 Beren 교수는 말하고 있다.²²⁾ 그러나 갈뱅은 “르네상스 인문주의 사상 그 자체에 대해서 결코 긍정적인 일은 없었다. 즉 기독교의 본질과 인문주의 사상은 근본적으로 이질적인 바탕위에 서있기 때문이다.”²³⁾

인문주의 인간론과 갈뱅의 인간론이 차이나게 되는 가

¹⁹⁾ 이형기, 종교개혁 신학사상 (서울: 장로회신학대학 출판부, 1984), p. 358.

²⁰⁾ 홍치모, 종교개혁사 (서울: 성광문화사, 1977), p. 136.

²¹⁾ Ibid., p. 138.

²²⁾ Ibid., p. 139.

²³⁾ Ibid., p. 140

장 근본적인 요인은 인문주의자들은 그들의 인간이해에 있어서 성경의 증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으며 특히 아담의 범죄와 타락이라는 사건을 인간이해에 전혀 연관시키려 하지 않는 반면, 칼뱅의 인간이해는 철저히 성경의 증거 위에 서있다는 점이다.²⁴⁾ 그래서 칼뱅의 신학적 인간이해에 있어서는 르네상스적인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이들 “르네상스 인문주의자들은 인간의 근본 구조를 플라톤적 이원론의 틀 안에서 본다. 즉, 인간은 영과 몸으로 구성되었다고 주장한다.”²⁵⁾ 이들은 또한 “영혼이 신성을 지녔다.²⁶⁾ 고 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가 결국 육체와 감관으로 말미암아 야기되는 부조화와 갈등을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하였다.²⁷⁾ 그래서 그들은 인간의 영혼에는 좋은 씨앗들이 이미 뿌려져 있으며 교육에 의하여 이 씨앗들이 계속 배양 성장된다고 볼 때, “인간 본성의 적극적인 능력과 기능은 중세기적인 의미에서 은총의 수단없이도 인간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다”²⁸⁾는 것이다.

24) 이수영, “칼뱅의 인간론”, 빛과 소금 (1985.5월호, 두란노서원), p.118.

25) 이형기, 종교개혁신학사상, op.cit., p.358.

26) Ibid., p.359.

27) Ibid.

28) Ibid., p.360.

“인간은 끊임없는 노력을 통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신성을 개발하여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29) 고 그들은 믿었다. 나아가서 “르네상스 인문주의자들은 자유의지의 윤리적 성취가 인간을 구원으로 인도한다” 고 본다. 30)

그러나, 갈뱅은 르네상스 인문주의자들과 달리 성경이 제시하는 인간이해를 받아 들였다. 물론 갈뱅도 인간을 이해할 때 인간은 “영과 육으로 구성되었다” 고 보았다.

영혼은 몸이 아니고, 몸은 영혼이 아니다. 그래서 영혼의 고유한 특성은 몸에 적용될 수 없고, 몸의 고유한 특성은 영혼에 적용될 수 없다. 그리고 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에게만 해당하는 것도 아니요, 몸에만 해당하는 것도 아니다. 결국 마음의 특성이 몸으로 이월되고, 몸의 특성은 영혼으로 이월된다. 그러나 이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간은 한 인간이지 여러 인간이 아니다. 31)

이제 우리는 갈뱅의 인간이해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고찰해 보겠다. 첫째는 피조물로서 창조 본래의 인간, 둘째는 타락후의 인간, 셋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을 차례로 살펴 보겠다.

29) Ibid.

30) Ibid., p. 362.

31) Institutes, II - Xiv - 1 .

A. 피조물로서 창조 본래의 인간

1.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가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불완전한 존재로 창조했느냐?”고 묻는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흠없이 창조되었다”는 것이³²⁾ 갈뵈의 견해다. 갈뵈는 그의 창세기 주석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닮듯이 인간이 그의 창조주를 닮아야 한다는 것은 더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하였다.³³⁾ 그러나, 갈뵈에 의하면 우리들에 관한 지식은 이중적 구조를 갖고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처음 지음을 받았을 때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하는 지식과, 둘째는 아담의 타락후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지식이다.”³⁴⁾

여기서 처음 지음 받은 원래의 완전한 인간 본성인 하나님의 형상을 고찰하기로 한다. 인간은 처음 어떻게 지음을 받았는가? 창세기 2장 7절에 따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³²⁾ Ibid., I - XV - 1. p.183.

³³⁾ John Calvin, Commentary on the Book of Genesis, 존 칼빈 성경주석출판위원회 역편, 구약성경주석 1 (서울:성서교재 간행사, 1982), 창 5:1 p.200.

³⁴⁾ Inst. 1 - XV - 1. p.183 (This Knowledge of ourselves is twofold: namely, to know What we were like when we were first created and what our condition became after the fall of Adam.).

생명이 된지라” 하였는데, 첫 사람 아담은 원래 순결한 상태로 창조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첫째로 인간이 땅의 진흙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갈뱅은 인간이 땅의 진흙으로 되어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교만에 대한 견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³⁵⁾고 지적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의 진흙의 장막에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욥 4 : 19) 그 자신의 몸 역시 흙과 먼지에 지나지 않는 우리가 자기 자신의 우월을 뽐낸다면 것처럼 모순된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질그릇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기를 결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불멸의 영의 거처를 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아담은 당연히 그의 창조주에 대한 큰 은혜 안에서 영광을 돌려야 할 것” 이라고 갈뱅은 말하였다.³⁶⁾

갈뱅은 그의 창세기 주석에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란 귀절을 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자신은 “인간의 동물적인 생명에 대한 것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의 의견에 찬성한다.”³⁷⁾고 했다. 그래서 그는 “생기”라고 하는 것을 “숨”이라는 단어로 해석한다.

35) Ibid., p.184 (창 2 : 7 주석참조 p.84)

36) Ibid.

37) Calvin, 창세기 주석. op.cit., p.85.

칼뱅은 “נְפִישׁ” (네페쉬) 38) 라는 말을 영혼의 가장 본질적인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형용사 “생”이라는 단어는 여기에만 적합한 것이지, 일반적으로 쓰이는 영혼의 능력을 모두 가르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왜냐하면 모세는 이 귀절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진흙 형상이 생기를 부여 받았고, 이로써 인간이 생존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칼뱅은 인간의 창조에 대해 세가지 문제를 주의해야 한다고 한다.39)

첫째로 인간의 죽은 몸은 땅의 먼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고, 둘째로 인간은 생기를 부여받아 생명력 있는 동작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며, 셋째로 하나님께서 이 영혼에 자신의 형상을 새겨놓으시고 거기에 불멸성을 부여하셨다는 사실이다.

창세기 1장 27절에 의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어떤 형태를 가졌다는 뜻인가? 물론 아닌 줄로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영이시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도 영이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38) William L. Holladay, A Concis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Leiden E. J. Brill, 1971), p. 242.

נְפִישׁ (breath) - what makes man and animals living being. (Gn. 1 : 20)

39) 칼빈, 창세기 주석, op. cit., p. 85.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의 외형 가운데에서도 비치긴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의 본래 자리가 영혼속에 있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⁴⁰⁾ 고 깔뱅은 말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논함에 있어서 용어상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 (창 1 : 26) 라는 용어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형상” 이란 말과 “모양” 이란 말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그러나 “형상 (image)” 이란 말과 “모양 (likeness)” 이란 말에 관해서는 적지 않은 이론이 있다. 왜냐하면 “모양” 이란 말이 단지 형상의 뜻을 더 잘 설명하기 위하여 첨가된 말에 지나지 않는다면 두말 사이의 차이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해석가들은 이들을 억지로 구분지으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깔뱅은 형상과 모양을 같은 뜻으로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히브리 어법에는 반복이 많이 있는데 한가지를 말하기 위하여 두 낱말을 쓸 때가 가끔 있다. 둘째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리운다는 사실 자체에는 아무런 애매한 점이 없다. 그러므로 두 낱말을 가지고 철학적인 논란을 펴는 것은 분명히 어리석은 짓이다.

40) John Calvin, Institutes, p.186. 1 - XV - 3.

그들은 מִצַּלְתָּ (젤렘) 즉 영혼이 본체인 “형상” תְּמוּנָה (테무스), 영혼의 성질인 “모양” 등을 구분짓고 그 밖에도 다른 것들을 내세워 열심히 따진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길 형상대로 창조하시기로 결심하시고 이말 때문에 오는 몽롱한 점을 없애기 위하여 「그 모양대로」란 말을 두 번이나 되풀이 하였는데 이는 마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속에 새겨놓은 표적에 의하여 말하자면 자신을 친히 그 형상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했다는 말이다. 따라서 모세는 이 기사를 말하고 나서 조금있다가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을 두 번이나 말하고 ‘모양’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창 1:27) 41)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서 어떤 실체적인 형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동물적인 모양에서 찾을 수 없다. 동물적인 모양을 초월하여 있는 것으로서 아담은 이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장소에서 문제없이 살고 있었다. 즉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영원한 삶이 인간의 완전한 행복이었고 그 목적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성과 총명이 인간에게 주어졌으며,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 없는 고상함과 품위를 지녔었다는 것이다. 42)

41) Ibid., p.188(김문제역, 기독교강요 제 1권, 혜문사, 1982. pp.352 - 353참조).

42) Institutes, II - i - 1.

이러한 인간의 본래적인 모습을 가장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라 볼 수 있다. ‘하나님의 형상’을 설명하는데 갈뱅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것은 ‘순전성(純全性, intégrité)’이라는 단어이다. 이 순전성이란 말로 그가 의미하고자 한 바는 그가 가졌던 철학적 인간 분석에서 보다 잘 파악될 것이다.” 43)

갈뱅은 “사람이 육체와 영혼(또는 정신)의 두 요소로 구성되었다.” 44)고 생각하는 점에서는 고대 서양 철학의 인간론을 대체로 따르고 있다. 그는 이 두가지 중 영혼이 보다 고상한 부분이며 이 영혼은 육체속에 거하면서

육체의 각 부분을 살리고 각 기관을 각각 활동할 수 있도록 유효 적절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을 통괄하는데 있어서 최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이다. 또 그것은 지상 생활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고무해 주는 역할도 한다.” 45)

갈뱅에 의하면 이 영혼은 다시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즉 지각(또는 이성)과 마음(또는 의지)으로서, 지각은 만사를 분별하고 우리에게 허락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43) 이수영, “갈뱅의 인간론”, 빛과 소금, 1985 5월호 (서울: 두라노서원), p.118.

44) Institutes, I - XV - 2.

45) Ibid., I - XV - 6.

판단하기 위해 있으며, 마음은 지각에 의해 좋다고 판단된 것을 따르거나 나쁘다고 하는 것은 배척하고 피하는 직능을 가졌다고 한다.⁴⁶⁾

여기서 부터 “깁뻑은 일단 육체와 영혼, 지각에서 마음에 이르기까지의 전인적 요소에 있어서의 순진성,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 이라고 본다.⁴⁷⁾ 그러나 그는 다른 한편 “외형적 인간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기는 하나, 그래도 그 영광의 최고 소재지가 영혼인 것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⁴⁸⁾ 고 함으로써 본래적 인간의 순진성 또는 하나님의 형상을 주로 ‘지각의 명석함’ 과 ‘마음의 곧음’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⁴⁹⁾ 인간의 첫 피조물 아담은 “처음엔 옳바른 지력을 받았으며, 감정을 이성으로 조화했으며 일체 감각을 적절한 질서에 따라 다스리게 했던 것이다.”⁵⁰⁾

또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는 인간에게 주어진 존엄성을 말한다.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는 그 무엇을 의미하며, 인간을 타 피조물과 구별하는 어떤 우월성을 의미한다고 본다.

46) Ibid., I-XV-7.

47) 이수영, “깁뻑의 인간론” op.cit., p.118.

48) Institutes, I-XV-3.

49) 이수영, “깁뻑의 인간론” op.cit., p.118.

50) Institutes, I-XV-3.

그리고 갈땀은 “하나님의 형상의 제일차적 좌소는 영혼과 마음가운데 있고 모든 영혼과 그의 여러 능력 가운데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육체의 어느 부분에도 그 섬광이 얼마만큼이라도 비추이지 않는 곳이 없었다.”⁵¹⁾고 본다.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시 8:4-6)는 말씀과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노” (히 1:14)라는 말씀을 종합해 볼때 결국, 하나님의 형상이란 동물보다 뛰어난 인간성의 그 모든 우수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2. 인간 창조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인간 창조의 목적”이라는 구체적인 예는 갈땀의 제네바 교회 요리문답 신앙에 나타나 있다. 이는 우리들이 그가 가진 교육의 목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 요리문답은 종전의 ‘신앙고백서’와는 달리, 목사가 묻고 아동이 답하는 형식으로 고쳐졌고 그 내용도

51) Ibid.

쉬워진 경향이 있다.” 52)

“이 문답서의 불어판은 편의상 55 주용으로 분류하여 가르칠 수 있게 되어 있다.” 53) 이 문답서는 373개의 목사와 어린이간의 질문과 대답으로 되어 있으며, 1부는 믿음, 2부는 율법, 3부는 기도, 4부는 성례를 다루고 있다. 54) 1부 신앙에 관한 조항 중 제1성일에 목사가 질문하고, 어린이가 대답하는 문답내용은 다음과 같다.

목사 : 인생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요?

어린이 :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목사 :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어린이 :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세상에 두심으로 우리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리는 것은 분명히 옳은 것입니다.

52) 강용원, “칼빈의 교육활동과 그 의의에 관한 연구”
op.cit., p.29.

53) *Ibid.*, p.30.

54) John Calvin, Theological Treatises, trans. with Instructions and Notes by J.K.S.Reid, The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Vol. XXII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54), pp.83 - 139.

목 사 : 그러면 인간의 최고의 선은 무엇인가요?

어린이 : 그것도 같은 것입니다.

목 사 : 왜 당신은 이것을 최고의 선이라고 하는가요?

어린이 :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없으면 우리의 상태는 다른 짐승들 보다 더 불행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 사 :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는 것보다 더 큰 불행은 달리 없음을 확신하는가요?

어린이 : 그렇습니다.

목 사 : 그러면 하나님에 관한 참되고 바른 지식이란 무엇인가요?

어린이 : 우리가 그를 알게 될 때 하나님 본래의 영광이 그에게 돌려집니다.

목 사 :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올바른 방법이란 무엇인가요?

어린이 :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배우며, 우리를 강권하는 어떠한 궁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바로 보면서 그 안에서 구원과 온갖 선한 일들을 찾으며, 마음과 입으로 하나님만이 모든 선한 것의 창조자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⁵⁵⁾

여기서 갈뱅은 인생의 주된 목적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으로서의 앎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삶의 행위를 포함한 경건의 앎인 것이다. 이와같은 앎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데 이것이 인간 창조의 목적인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다.

갈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필수 조건이다.”⁵⁶⁾ 고 말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바지되며, 무슨 이익이 우리에게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다.”⁵⁷⁾ 고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은 그 자신을 단순히 창조주로 보여 준다. 하나님은 그가 능력으로 우주를 창설하신 것처럼 그의 무한하신 능력으로 이 세상을 유지하고 계시며, 그의 지혜로써 다스리시고, 그의 선함으로 보존하시며, 특히 공의와 심판으로 인류를 다스리시며, 그의 자비로 용서하시고, 그의 보호로써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빛과 지혜와 공의와 권능, 정직, 참된 진리, 어느

⁵⁵⁾ John Calvin, Theological Treatises, pp.91-92.
이장식, 기독교 신조사 (컨콜디아사, 1979), pp.144-203. 제네바교회 신앙문답서 참조.

⁵⁶⁾ Ibid., I-II-1.

⁵⁷⁾ Ibid.

하나라도 그로 부터 나오지 않는 것이 없고 그에게 원인을 두지 않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깔뱅의 주장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그로 부터 바라고 구하여 한번 받은 것은 그에게 감사함으로 은혜에 보답하는 것을 배워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다.

깔뱅이 말하는 ‘하나님 경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그의 은혜를 알게 하는데 동참케 하는 경외”이다.⁵⁸⁾

인간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 때까지, 인간들이 그의 아버지의 돌보심에 의하여 양육되어짐을 알 때까지,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선한 것의 창시자임을 알 때까지, 그들이 그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때까지, 그들은 결코 하나님에게 자진해서 봉사하는 순종은 없을 것이라고 깔뱅은 주장하고 있다.

깔뱅에 의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신뢰와 경외심을 수반한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회미한 일반적인 존경을 하지만 극소수만이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것이라” 보았다.⁵⁹⁾

인간의 마음 속에는 자연적 본능으로 하나님을 어느정도 알 수 있는 감각이 있다고 본다. “인간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씨가 있어 종교적 경향이 싹트게 되는

58) Ibid., p.41. 1 - II - 1.

59) Ibid., p.43. I - II - II.

데 만일 인간들의 마음 속에 본래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한결같이 굳게 뿌리 박혀 있지 않았던들 그들은 이러한 일에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⁶⁰⁾

깁뵁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씨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아무리 야만 민족이요, 아무리 금수와 같은 인종이라 할찌라도 「하나님은 있다」라는 확신을 갖지 않는 자들은 없다”⁶¹⁾는 것이다. 그러므로 천지 창조 이후 종교 없이 산 나라, 도시, 가정은 지구상 어디를 보아도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감각이 각사람의 마음 속에 새겨져 있다는 증거인 것이다.

우리는 지금도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실제적 무신론은 불가능한 것이다. 건전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새겨져 있어 결코 지워 버릴 수 없다는 것을 깁뵁은 확신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짐승보다 높게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며 그것을 통해서만 그들이 영생불멸을 동경하게 된다.”⁶²⁾는 것이다.

⁶⁰⁾ Ibid., p.45. I-III-2.

⁶¹⁾ Ibid., p.44. I-III-1.

⁶²⁾ Ibid., I-III-3.

3. 창조된 인간의 능력

인간이 처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을 때에는 그의 모든 후손들과는 아주 다른 상태에 있었다. 즉 “맨 처음에는 인간의 각 부분은 완전을 목표로 형성되었고, 영혼의 전전과 선을 선택할 의지의 자유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⁶³⁾

인간이 범죄하기 전 처음 상태에서는 탁월한 재능들로써 특출했었는데, 즉 이성, 지성, 분별력, 판단력 등으로 그의 지상 생활의 방향을 위해서 만족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영생복락의 경지에 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다.”⁶⁴⁾

이와 같은 완전한 인간에게는 자유 의지에 의해서 만일 그가 선택하기만 했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갈뱅은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담은 자기가 원했더라면 설 수가 있었는데 그는 그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스스로 떨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의지가 어느 방향으로도 갈 수 있었기 때문이며, 인내하는 항구성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도 쉽게 타락했다고 갈뱅은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선악에 관한 그의 선택은 자유였고,

⁶³⁾ Ibid., I-xv-8.

⁶⁴⁾ Ibid.

정신과 의지에는 최고의 공정이 있고 모든 기관 부분은 그 자신의 축복들을 부패케 하고 파괴할 때까지 올바르게 순종으로 정돈되어 있었다.”⁶⁵⁾ 고 보면서 아담이 미끄러지기 쉬운 곳에 있었다고 보는 사람들에게 깔뱅은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기하였다.⁶⁶⁾

아담의 위치 그 자체가 어떤 구실이라도 물리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지을 마음도 전혀 없는 기계 인간으로 만드시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이다. 또 하나님은 어찌서 인내에 덕을 아담에게 주어서 아담을 붙들지 아니 했는가 하는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감추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케묻지 않아야 한다. 인간이 자멸을 선택한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책임인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선·악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간적인 자유 의지를 주어 타락케 하여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영광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부여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창조 본래의 인간의 모습이야말로 참 인간의 모습이다. 그러나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은 이중의 지식인데, 즉 태초에 우리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하는 것과, 아담의 타락 이후

⁶⁵⁾ Ibid.

⁶⁶⁾ Ibid.

우리가 어떤 상태 속으로 떨어졌는가 하는 것이다.”⁶⁷⁾ 라고 말하는 갈뱅 자신의 문제에 있어서 실제로 ‘지각의 명석함’과 ‘마음의 끈음’을 지녔던 본래적인 인간의 모습을 알기 위해서는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 본성이 어떻게 부패 했으며 변형이 되었는가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다.⁶⁸⁾ 이런 점 때문에 갈뱅에게 있어서 인간 이해의 주된 관심은 ‘자연적으로 부패한 인간’의 모습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선택의 자유 의지를 잘못 사용하여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순서에 따라 고찰해 보기로 한다.

B. 타락후의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교만 때문에 자유 의지의 잘못 선택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였다. 여기서 첫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 죄인으로서 타락하게 되었으며 아담의 타락과 배반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다.⁶⁹⁾ 그러나 이 타락을 인간 자신은 타락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선하고 행복

⁶⁷⁾ Ibid., I-xv-1.

⁶⁸⁾ 이수영, “갈뱅의 인간론,” op.cit., p.118.

⁶⁹⁾ Inst., II-i-2.

된 생을 누리기에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써도 충분하다고 믿고 있다.⁷⁰⁾

그렇지만,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다 (non posse non Peccare)”. 인류가 이렇게 된 것은 아담이 범한 결정적인 죄, 즉 원죄 때문이다.⁷¹⁾

그러나 ‘아담의 범죄’ 사건은 많은 질문을 제기해 왔으며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신학적 문제이다.

여기서 그 문제들을 모두 다룰 수는 없고 그 문제들에 대한 짚방의 생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과 악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질 수 있는 자유 의지를 주셨고, 둘째, 아담은 그가 원하기만 했었다면 타락하지 않은 채 본래대로 있을 수 있었으며,⁷²⁾ 셋째, 그가 실족한 것은 그가 선택한 자신의 의사에 의한 것이요, 네째, 그가善쪽에만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내적 경륜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므로 그 이유를 묻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라고 보는 것이다.⁷³⁾

⁷⁰⁾ Ibid.

⁷¹⁾ Ibid., II-i-1, 2, 3.

⁷²⁾ Ibid., I-xv-8.

⁷³⁾ Ibid.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은사와 선물들은 아담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자손들에게도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아담이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의 형상을 잃어 버렸다면 그 결과는 우리 모두에게 미치는 것이다.⁷⁴⁾ 그가 죄에 대해 더럽혀 졌으면 그 오염은 우리 모두에게 퍼진 것임에 의심이 없다. 왜냐하면 “이 더럽혀짐은 그 원인과 근본이 육체나 영혼의 본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가 첫사람에게 기탁하셨던 선물들이 그것들을 간직하던 잃어버리든 간에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공동의 것이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⁷⁵⁾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 은사들을 잃어 버리고 자연적으로 부패한 인간들은 보기 흉하게 일그러졌으며, 온갖 오물과 악취의 소굴이 되었다고 갈뱅은 주장한다. 이와 같은 인간을 묘사하는 언어중 하나는 ‘인간의 교만이다.’ 이 교만 때문에 “인간은 그의 죄와 약함과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섬김에서 멀어져 있다.”⁷⁶⁾ 고 갈뱅은 생각한다.

⁷⁴⁾ Ibid., II-I-5.

⁷⁵⁾ Ibid., II-i-7. 이수영, “갈뱅의 인간론,” op.cit., p.119. 재인용.

⁷⁶⁾ Ibid., II-I-4. 이수영, “갈뱅의 인간론,” op.cit., p.120.

타락 이전의 순전성이 영과 육 전체로서의 인간에 관
계된 것과 마찬가지로 타락은 “지각으로 부터 의지까지 영혼
에서 육체까지 사람의 모든 부분이 더럽혀진 결과를 낳았다.”⁷⁷⁾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 ‘지각의 명석함’ 과 ‘마음의
끈음’ 이 하나님의 형상을 주로 나타내는 인간의 덕목이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된 가장 큰 결과는 ‘지
각의 눈먼’ 과 ‘마음의 부패’ 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 갈뱅
의 자연적 인간 이해의 중심이다” 고 이수영교수는 지적한다.⁷⁸⁾

1. 지각(이성)의 우매함

타락한 인간은 그의 교만함에도 불구하고 죽음과 그
죽음에 대한 공포를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의
최고의 행복과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다.”⁷⁹⁾ 고 말하는
갈뱅에게 있어서는 타락한 인간에게 불행의 본질이 육체적 죽
음 보다는 영적 삶에 대한 갈망의 결핍과 하나님에 대한 지
식의 상실에서 찾아지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⁸⁰⁾

그렇다고 해서 갈뱅의 이러한 인간 이해는 타락한 인
간에게서 모든 종류의 우수성이나 긍정적인 면을 전적으로 부

⁷⁷⁾ Ibid., II-II-12.

⁷⁸⁾ 이수영, “갈뱅의 인간론,” op.cit., p.120.

⁷⁹⁾ Institutes, I-V-1.

⁸⁰⁾ 이수영, “갈뱅은 인간론,” op.cit., p.120.

정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낱뱀은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 형상의 완전한 소멸을 말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가 인간의 지성이 영구적 맹목이 되어 버렸다고 단정하여 어떤 종류의 사물도 인식하는 지각의 여지를 남겨 놓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보통 상식적 경험에도 배치되는 것이다.⁸¹⁾’

그렇다면, 인간의 지성 가운데는 얼마만큼의 인식력이 있어 이것으로써 진리에 대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작연적으로 조치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영혼은 우둔하기 때문에 바른 길로 갈 수 없고, 잡다한 미로를 오리무중 격으로 헤메다가 마침내는 꺼져 버리고 만다.⁸²⁾

또, ‘인간은 사회적 동물’ 이므로 본능적 충동에 의하여 사회를 양육하고 보존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⁸³⁾ 따라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시민으로서의 공정과 질서에 관한 보편적 인상이 부식되어 있다고 본다.

그리고 예술과 과학면에 있어서도 지성의 힘은 작용하는데 그것들을 배울 힘과 소질이 타락한 인간에게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은 지성의 힘은 인간이 나면서 부터 가지는 것은

⁸¹⁾ Institutes, II-II-12.

⁸²⁾ Ibid.

로 갈뱅은 이해하고 있다.⁸³⁾

“인간의 영혼이 아무리 그 순전함으로 부터 떠나 타락하여 사악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뛰어난 은사들을 옷입고 장식되어 있다.”⁸⁴⁾ 고 갈뱅은 보고 있으며, 무엇을 배우고 발명하고 개선하는 재치도 있다고 봄으로써 세상 정치, 집안살림, 공예, 기술, 철학, 물리, 화학, 의학, 논쟁술, 합리적 화술 등 세상에서의 인간적인 일에 관한 한 사람들은 아직 어떤 ‘섬광의 불씨’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로 하여금 짐승이나 다른 피조물들로 부터 구별되게 하는 이성적 탁월성을 지녔음을 인정한다.⁸⁵⁾

한 걸음 더 나아가, 갈뱅은 모든 인간에게 ‘종교의 씨 (Semen religionis)’가 심어져 있어서 막연하게나마 神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나 신적인 것에 대한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 졌다고 본다.⁸⁶⁾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의 비밀, 구원, 참된 의, 경건, 내생에 관한 지식등 영적인 일들에 관해 참으로 아는데 있어서는 타락한 인간은 전적으로 무력하다고 보는 것이 갈뱅

⁸³⁾ Ibid., II-II-13.

⁸⁴⁾ Ibid., II-II-14.

⁸⁵⁾ Ibid., II-II-15.

⁸⁶⁾ Ibid., II-II-13. 이수영, “갈뱅의 인간론,” p.120. 참조.

⁸⁷⁾ Ibid., I-xv-6, I-v-1. 이수영, “갈뱅의 인간론,” op.cit., p.120.

의 주장이다.⁸⁸⁾

이상으로 보건데, “하나님에 관한 순수하고 명백한 지식에 까지 이를 능력이 우리에게는 자연적으로 결여되어 있다.”⁸⁹⁾는 것이 칼뱅의 신학 전체의 시발점이라 볼 수 있다.

2. 마음(의지)의 부패

인간이 타락했다면 그가 본래 가지고 있었다고 믿어지는 자유 의지는 어떻게 되었을까? 대개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펠라기우스나 일부 로마 교회 신학자나 에라스무스(Erasmus)는 긍정적인 해석을 내렸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나 루터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졌다. 그래서 전자는 인간의 자유 의지를 긍정하기 때문에 자연히 공로사상(功勞思想)이 따르게 되었으나, 후자는 노예의지를 주장했기 때문에 신앙만(Sola fide)을 주장하게 되었다.⁹⁰⁾

물론 칼뱅도 아우구스티누스나 루터의 견해와 같다. 이미 우리가 고찰한 바와 같이 칼뱅은 영적인 일들에 관해 인간의 전적인 무능을 강조했다. 그러므로 “사람은 죄의 노예가 되어 있으므로 자기 자신의 본성으로써는 선을 향하여 노력할

⁸⁸⁾ Ibid., II-II-13.

⁸⁹⁾ Ibid., I-V-14.

⁹⁰⁾ 이종성, 칼빈, op.cit., p.118.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느낌을 가질 수도 없다.”⁹¹⁾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로마서 7:14^b~20)

고 고백하였는데 여기서 우리는 자유 의지를 박탈당한 노예 의지의 소유자인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아우구스티누스도 “우리들의 것이란 죄 밖에 아무것도 없다.” 고 하였다.⁹²⁾

아우구스티누스 (Augustine) 는 인간의 의지를 말타는 사람이 명령을 기다리는 말에 비했는데 여기서 타는 사람이란 하나님과 마귀로 보았다. 하나님이 타시면 잘 조절해서 바른 길로 갈 것이나 만약 마귀가 타다면 어리석게 몰아서 결국에는

⁹¹⁾ John Calvin, 기독교 강요, II-iv-1.

⁹²⁾ Ibid., II-iii-1.

절벽에 부딪치고 낭떠러지로 빠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⁹³⁾ 이 말을 전적으로 지지하면서 칼뱅은 “은총의 도움을 받지 않는 한, 사람은 선행을 위한 자유 의지는 소유하지 않는다”고 한다.⁹⁴⁾

인간은 이제 선택의 자유를 박탈 당하여 결국 비참한 노예의 신세로 타락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철학자들은 “우리가 선한 일, 또는 악한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⁹⁵⁾고 의지의 자유 선택을 주장하고 있다.

어떤 학자들은 인간의 자유 의지를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전개한다. “만약 죄를 필연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죄가 될 수 없다. 또한 그것이 자발적으로 행한 것이라면 그것을 피할 수도 있었다.”⁹⁶⁾ 이렇게 해서 그들은 인간이 죄를 피하고 선을 행할 자유의지를 소유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칼뱅은 그런 논리에 넘어가지는 않는다. 죄를 필연성의 산물이라고 해서 그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 죄는 하나님의 창조에서 온 것이 아니라 처음 사람 아담이 조물주에게 반항하는 부패성에서 온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논의도 틀린 것이다. 왜냐하면 자발적이라는 말과 자유라는 말을 혼돈

⁹³⁾ Ibid., II-iv-1.

⁹⁴⁾ Ibid., II-ii-4.

⁹⁵⁾ Ibid.,

⁹⁶⁾ Ibid., II-V-1.

하는 데서 온 생각이기 때문이다.”⁹⁷⁾

갈뱅은 「기독교 강요」 제 2 권 제 5 장에서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여러 학설들을 반박한다. 만약 덕행이나 악행이 자유 선택에서 초래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형벌해서 안된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설이나,⁹⁸⁾ 만약 자유의지가 없다면 죄인에 대해서나 일반인에 대해서 덕행을 권장하는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반박이나,⁹⁹⁾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암 5:14).”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와 그의 말씀이니라 (사 1:19-20)” 고 하신 말씀이나 그 외에도 예레미야 4 장 1 절이나 신명기 28 장 1 절 등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전제로 한¹⁰⁰⁾ 말이라고 해서 자유의지를 부르짖는 자들에 대하여 갈뱅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¹⁰¹⁾

그러므로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도 요동시킬 수 없는 의심없는 진리로 받아 들이자. 즉, 인간의 영혼이란 하나님의 의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 있으므로 불경되고 비틀어지고 더럽고 불결하고 파렴치한 것 외에는 무엇이나 생각하고 바라고 시

⁹⁷⁾ Ibid.

⁹⁸⁾ Ibid., II-V-2.

⁹⁹⁾ Ibid., II-V-4.

¹⁰⁰⁾ Ibid., II-V-10.

¹⁰¹⁾ Ibid., II-V-19.

도할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마음 역시 죄의 독에 찔려 있어 썩은 악취의에 아무 것도 발산할 수가 없다. 그러나 만일 때로 사람에게 따라 선의 의면을 나타내보이는 일이 있을찌라도 그들의 영혼은 여전히 위선과 허위의 계약에 말려 있으며 그들의 마음은 내적인 악의 창고에 묶여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깔뱅의 철저한 생각은 근대에 이르러 많은 반대에 봉착했다. 그 중의 가장 대표적인 신학자는 아르미니우스(Arminius)였다. 반대자들의 생각에는 만약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유의지를 부인한다면 적극적인 윤리성을 내포한 신앙생활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으나 현실적으로는 그와 반대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즉, 자기의 무가치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의지해서 그의 뜻에 따라 생활한다는 것이다.¹⁰²⁾

Lombard는 그의 명제집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면 이중적 은혜가 필요한데 “선을 할 수 있는 욕구를 효과적으로 북돋아 주는 동작적 은혜와 선한 의지를 계속 돕기 위한 협동적 은혜”가¹⁰³⁾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깔뱅은 자기 본성으로도 어느 정도 선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 것에 대해서는 비판하였다.

결국, 자유의지란 은혜의 도움을 받지 않은 한, 아니 실

¹⁰²⁾ 이중성, 칼빈, op.cit., p.120.

¹⁰³⁾ John Calvin, Institutes, II-II-6.

로 택함을 입은 자만이 중생을 통하여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은혜의 도움을 받지 않는 한, 선한 행위를 하기에는 불충분한 것이다.¹⁰⁴⁾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은 이성의 우매와 마음의 부패로 인하여 자유의지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해서 갈뱅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안에 '종교의씨'를 심어 주었지만 그의 마음 속에 한 번 받아서 기르는 사람을 만나기는 백명 중 겨우 한 사람정도이고 또 그것을 잘키워서 시절을 따라 열매를 보여 주는데까지 성숙케하는 자는 없다. 그 밖에 어떤 이들은 그들 자신의 미신들 속에서 증발시켜 버리고 또 다른 이들은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하나님을 저 버리기 때문에 모두가 그의 참된 지식으로 부터 퇴보한다. 그래서 세상에는 참 하나님 경외자가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¹⁰⁵⁾

또 다른 하나의 문제는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상상함으로써 생기는 문제다. 스스로 만든 하나님을 숭배하는 일에 대해서 갈뱅은

그들은 참 하나님보다 자기 마음의 꿈이나 공상을 그대로 숭배하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나 봉사를 시도하지만 하나님께 공헌하는 것은 없다. 바울은 이 사악함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¹⁰⁴⁾ Ibid.

¹⁰⁵⁾ Ibid., I-IV-1.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그들은 스스로 어리석게 만든다」
(롬 1:22)고 하였다.¹⁰⁶⁾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변덕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이다. “공포가 이 세상에서 처음 신들을 만들었다.”¹⁰⁷⁾ 는 스타티우스 (Statius)의 말은 위선자와 어리석은 자들에게나 어울리는 말이라 볼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앞에서 “영혼의 기본적인 기능은 이성과 의지”라고 하였다.¹⁰⁸⁾ 여기서 이성의 임무는 어떤 대상들을 각각 인정할 것인가 또는 부정할 것인가를 보아서 바로 식별하는 일 이요, 의지의 임무는 지성이 좋다고 하는 것을 받아 들이고 나쁘다고 하는 것을 배척하고 피하는 일이다.¹⁰⁹⁾

그런데, 갈뱅은 “구원 문제에 관하여 이성은 완전 맹목이다.”¹¹⁰⁾ 고 하였으며, “인간의 이성은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참지식을 모른다”¹¹¹⁾ 고 하였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또 그를 마음에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사람의 마음을 둔하게 함으로써 보아도

¹⁰⁶⁾ Ibid.

¹⁰⁷⁾ Ibid., I-iv-4.

¹⁰⁸⁾ Ibid., I-xv-7.

¹⁰⁹⁾ Ibid.

¹¹⁰⁾ Ibid., II-II-18.

¹¹¹⁾ Ibid., II-II-22.

보지 못하게 하였다.”¹¹²⁾ 이에 대해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렘 17:9)”고 증거 하였다.

인간이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은 터무니없는 것이어서 악을 행하면 이미 마음에 할 수 있는데까지 죄를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는 간사한 동물이다.'¹¹³⁾ 이와 같이 마음의 심한 부패로 이성이 옳다고 하는 것까지도 마음이 따르지 못하고 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것을 회복하는 길은 무엇일까? 우리는 이미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창조 본래 인간의 모습과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비교해 볼 때 많은 차이를 발견하게 된다. 타락한 인간은 '지각의 우매함'과 '마음의 부패'로 창조 본래 인간의 능력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 창조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도 없게 되었다. 그러나,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새롭게 되는 인간의 모습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C.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으나 아담이

¹¹²⁾ Ibid., I-IV-2.

¹¹³⁾ Ibid., II-II-22.

그 위치에서 부터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부터 멀리 떠나 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¹¹⁴⁾

이러한 타락속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속에서 전적으로 없어진 것은 아니고, 그 타락된 인간의 모습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희미하게나마 약간은 남아 있음을 이미 언급하였다. 그러나 그 부패가 너무 심하여 타락된 인간편에서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전연 불가능한 것이다. “주님의 긍휼이 아니고서는 인간에게 구원이 없다.”¹¹⁵⁾ 이는 인간이 자기가 자멸하여 통곡할 수 밖에 없는 버림받은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이다(롬 3:23).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하여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인간회복을 위한 사랑의 섭리로 나타나셨다. 인간이 타락한 것은 “인간세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되시어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인간세계로 오셨다. 이것을 우리는 成肉身(Incarnation)이라고 한다.¹¹⁶⁾

하나님이 인간을 선택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영원한 계획을 수립하셨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仲保者의 역할을 담당하셨다. 그

¹¹⁴⁾ Ibid., I-xv-4.

¹¹⁵⁾ Ibid., II-III-2.

¹¹⁶⁾ 오창학, “칼빈신학에 있어서의 인간회복”(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 대학원, 1974), p.41.

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진 이 중보 사역은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얻어지는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지며 이것을 통하여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다.¹¹⁷⁾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선택받은 죄인은 비록 죄인일지라도 '구속받은 죄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하며 승리의 생활을 하게 된다.

1. 하나님의 형상인 중보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타남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의 객관적인 표현이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이 되며, 모든 사물가운데서 하나님과 같은 닮음 (likeness) 이 된다.”¹¹⁸⁾ 이것은 예수께서 “나의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 것과 같다 (요 10:30). 또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 달라”고 할 때 (요 14:8) 예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요 14:9)”는 대답에서 우리는 그 닮음의 정도를 알 수 있다.

¹¹⁷⁾ 정정숙, 종교개혁자들의 교육사상 (서울:총신대학 출판부, 1983), p.169.

¹¹⁸⁾ The International Standard Bible Encyclopaedia (Grand Rapids :Wm.B.Eardmans Pub.CO., 1974), Vol. III. p.1451. 장화선, “John Calvin의 인간 이해와 교육,” p.32. 재인용.

무능력한 존재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구원받는 길은 증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길 밖에 없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찾아야 한다.”¹¹⁹⁾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에 관한 구원의 지식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¹²⁰⁾

신앙의 길이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같이 죽고 그의 삶에서 같이 사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민족적인 의식도 교회적인 훈련도 아니다. 오직 개인 대 개인의 결합인 “엔 크리스트오 (ἐν χριστῷ,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취가 바로 구원의 성취인 것이다.”¹²¹⁾

하나님의 인간창조의 목적이 그들과의 교제에 있다고 볼 때, 성령을 통한 “엔크리스트오”에 있어서 신 인간 교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갈뱅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론의 가장 중요한 관점은 그의 ‘증보자 (mediator) 되심’이다. 이 말은 다른 표현으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인간사이의 화해자 (reconciler)가 되신다”는 말이다.¹²²⁾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결렬되어

¹¹⁹⁾ John Calvin, Institutes. p.340 II-vi-1.

¹²⁰⁾ Ibid., p.347. II-vi-4.

¹²¹⁾ 이상근, 옥중서신 신약주해 (서울:예장총회교육부, 1982), p.48.

¹²²⁾ John Calvin, Institutes, II-XII-1.

있으며 불편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하여야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갈뱅은 「기독교 강요」 2권에서 먼저 인간의 타락을 다루었고, 그 다음 율법을 다루고 나서 그리스도론을 논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중보자의 직분을 다하기 위하여 인간이 될 필요가 있었다. “인간이 되어야 할 첫째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다리를 놓아 주시기 위하여 중보자가 하나님과 동시에 인간이 되어야 했다.”¹²³⁾ 둘째 이유는 중보자는 진정한 하나님과 진정한 인간이 되어야 했으며, 세째 이유는 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케하기 위하여는 육신을 입어야 완전히 순종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¹²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야 할 분은 참 하나님도 되고 참 인간도 되어야 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 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마 1:23). 그리하여 그의 신성과 우리의 인간 성품을 상호 연결하여 합일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의 더러움과 하나님의 완전 순결함 사이에는 그리스도의 중보없이 함께 할 수 없었다. 성령님께서서는 그를 ‘인간’이라고 불러서 그가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가르쳐 줌으로써 그가 우리의 육신이

¹²³⁾ Ibid., II-xii-1.

¹²⁴⁾ Ibid., II-xii-3.

되어 주기 때문에 우리를 접촉하시는 것이다. 그는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셨다(히 4:15). 그렇기때문에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이신 그 만이 우리 대신에 순종할 수 있었다.”¹²⁵⁾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고 그로 부터 떠나 있는 한 아무리 그가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일을 했다 해도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나 가치가 없다는 사실이다.”¹²⁶⁾ 물론 우리가 이것을 얻은 길은 신앙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일체의 은사를 향유하고 누리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묶어 주는 성령 때문인 것이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내적 조명,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을 가르키는 것이다. 이제부터 믿음에 관한 갈병의 사 고에 대해서 고찰하기로 한다.

2. 믿음을 통한 하나님 형상의 회복

a. 믿음의 근원

「기독교 강요」의 여기저기에서 나타나는 언급들을 종합해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다.¹²⁷⁾ 이 믿음

¹²⁵⁾ Ibid.

¹²⁶⁾ Ibid., III-i-1.

¹²⁷⁾ Ibid., III-III-33.

은 각자의 의지나 노력으로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¹²⁸⁾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 믿음이다.

b. 믿음의 지식

지식이 믿음에 있어서 전부는 아니나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믿음에는 대상이 있고 그 대상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갈벱은 “믿음이란 무지에 서는 것이 아니고 인식위에 서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진정 하나님을 아는 인식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까지 아는 인식인 것이다”고 한다.¹²⁹⁾

‘믿음’이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데 있으며,¹³⁰⁾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지식이다.”¹³¹⁾고 표현하기도 한다. 갈벱은 또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을 파악하는 것처럼 고상한 지식으로서 믿음”을 설명하고 있다.¹³²⁾

그러면 ‘믿음’은 무엇을 지식의 내용으로 하는가?

“모든 올바른 지식의 시작은 성경으로부터 온다”¹³³⁾고 말하

¹²⁸⁾ Ibid., II-III-8.

¹²⁹⁾ Ibid., III-II-2, 6.

¹³⁰⁾ Ibid., III-II-3.

¹³¹⁾ Ibid., III-II-12.

¹³²⁾ Ibid., III-II-14.

¹³³⁾ Ibid., I-VI-1.

는 갈뵁에게 있어서는 성경의 가르침들이 곧 기독교 신앙의 지식 내용임을 보여 주고 있다.¹³⁴⁾

그러나 갈뵁에게 있어서는 성경의 가르침을 알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지식은 “하나님이 성경의 진정한 저자” 이시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을 아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시초라고 갈뵁은 보고 있다.

우리의 구원에 필요하고 유익한 모든 것을 성경에 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가르침은 당연히 신자들의 지식 내용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갈뵁이 말하는 성경의 중심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 이다.¹³⁵⁾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 질문에 관한 갈뵁의 이해를 간단히 요약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요, 구원자로 아는 것”¹³⁶⁾ 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요 구원자되신 하나님” 이것이 갈뵁이 성경을 통해 발견하고, 이해하고, 체험하고, 확신하고, 선포하며, 증거하고, 가르치려고 한 하나님이며, 이에 따른 기독교 신앙의 지식 내용의 쫓

¹³⁴⁾ 이수영, “갈뵁의 신앙론,” op.cit., p.115.

¹³⁵⁾ Ibid.

¹³⁶⁾ Ibid., II-vi-1.

점이라 할 수 있다.¹³⁷⁾

그런데 갈뱅에게 있어서의 믿음의 지식은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지식과는 본질적으로 그 성격이 다름을 알아야 된다. 그에게 있어서 믿음의 지식은 의심이나 반론의 여지가 있는 의견이 아니며, 순전히 합리적인 이해도 아니고, 단순한 지적 동감도 아니다.¹³⁸⁾ “믿음은 고차원적인 인식이며 ‘믿음의 지식’은 이해보다는 확신 가운데 있다.”¹³⁹⁾ 갈뱅은 이 「확신」을 더 강조하기 위하여 “믿음은 확고 부동한 것이다”¹⁴⁰⁾ 고 하였다. 왜냐하면, 믿음은 의심에 차있고, 또 변하는 의견 따위로 만족할 것이 아닌 것처럼, 사람들이 친히 체험하고 증명한 것들에 관하여 항상 하는 것처럼 충분하고 견고한 확실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¹⁴¹⁾

이러한 확신은 인간 이성애 속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설득된 확신이며¹⁴²⁾ 성령의 물리칠 수 없는 설득으로 부터 오는 확신이다.¹⁴³⁾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확실히 보장해 주시며 또한

¹³⁷⁾ Ibid.

¹³⁸⁾ Ibid.

¹³⁹⁾ Ibid., III-II-14.

¹⁴⁰⁾ Ibid., III-II-15.

¹⁴¹⁾ Ibid.

¹⁴²⁾ Ibid., III-II-6.

¹⁴³⁾ Ibid., III-II-12.

쳐 주시므로 (엡 1:4) 그가 새겨준 표는 절대로 그들의 심령으로 부터 말살되지 않는 것이다.

바울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롬 10:10)”고 하였고, 갈뵈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두뇌에 관한 것보다는 마음의 문제이고, 지성의 문제라기 보다 심성에 관한 문제”라고 하였다.¹⁴⁴⁾

우리가 머리로 믿음을 일시적으로 가질 수도 있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택자에게 썸지 않는 썸로써 영생토록 증생시켜 (벧전 1:23) 그들 마음 속에 심어진 영생의 썸이 절대로 멸망치 않도록 하기 위해 양자로 삼는 그의 은총으로서 그들에게 굳게 인쳐 주시는 것이다.¹⁴⁵⁾ 말씀이 마음 속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릴때 비로소 말씀의 참된 영접이 있고 참된 믿음이 있는 것이다.

“오직 참 진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에 인쳐 주시는 것이다.” 성령이 우리들의 마음 속에 인치시는 믿음 외에는 참된 믿음은 없다.¹⁴⁶⁾ 이 마음의 확신이 ‘믿음의 주된 부분’이며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만 신앙을 확립해 준다”고 갈뵈은 말한다.¹⁴⁷⁾

¹⁴⁴⁾ Ibid., III-II-8.

¹⁴⁵⁾ Ibid., III-II-11.

¹⁴⁶⁾ Ibid., I-VII-5.

¹⁴⁷⁾ Ibid., III-II-33.

c. 믿음의 본질

그러나 믿음은 그저 쳐다보고 사변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받아들이고 소유하는 행동이며 실천적인 삶이다. 그렇다면 참 믿음이 되게 하는 행동적, 실천적 믿음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이수영 교수는 갈뻥의 모든 신학적 언급 속에 부단히 나타나는 그 구성 요소들을 다음과 같이 여덟가지로 정리하였다.¹⁴⁸⁾

첫째는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를 설정하는 일이다. 믿음이 참된 믿음, 실천적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개인적 관계의 문제로 되어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고 그로 부터 떠나 있는 한 아무리 그가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일을 했다. 해도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나 가치가 없다.”는 사실이다.¹⁴⁹⁾

둘째는 나 자신의 발견에서 오는 겸손이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나의 개인적 관계가 이루어질때 우리는 하나님앞에 나를 세우고 나를 비추어 봄으로써, 비로소 나의 참 모습을 깨닫게 된다. 이 때에 발견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으로서의 나 자신이며 그것은 곧 사악하고, 연약하며, 우매하고, 교만한 존재라는 인식이다. 이러한 초라하고 부끄러운 자기 인식

¹⁴⁸⁾ 이수영, “갈뻥의 신앙론,” *op.cit.*, pp.116-117.

¹⁴⁹⁾ *Institutes*, III-i-1.

은 더욱 크신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을 재발견 하는 데로 되돌려 진다는 것이다.

갈뱅은 「기독교 강요」 서두에서 프랑스 국왕 프란시스 페 하에게 올리는 글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입혀주는 옷을 입기 위하여 모든 덕을 벗어 버리며, 그에 의하여 충만히 채움을 받기 위하여 모든 선을 비워 버리고, 그가 주시는 자유를 얻기 위하여 소경이 되며, 그의 불드심을 받기 위하여 약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만이 홀로 영광스럽게 빛나게 하기 위하여 우리들 자신의 모든 영광의 터전은 다 제하여 버림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만 영광을 누릴 것을 친히 아는 것 보다 더 좋고 더 신앙과 합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고전 1:31, 고후 10:17)¹⁵⁰⁾

라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할 인간의 모습을 말해 주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인간의 교만 때문에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의 죄와 허물과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섬김에서 떨어져 있다고 갈뱅은 생각하였다.

누가복음 5장에서 시몬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했을 때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발견하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눅 5:8)” 라고 그의 심경을 토로하였다. 참된 하나님의 지식은 나 자신의 비천함을 깨

¹⁵⁰⁾ Ibid., p.13.

달게 해주며, 이 깨달은 나를 겸손하게 만든다. 우리들의 믿음이 서는 곳은 이 겸손 위에서이다. 그래서 깔뱅은 아우구스티누스와 함께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 중요한 덕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우리가 겸손하게 되는 길은, “전적으로 겸허하게 되고, 無로 돌아가 하나님의 공활을 받아들이는 길 밖에는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무엇이 남아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한 깔뱅은 그것을 겸손이라고 부르지 않기 때문이다.¹⁵¹⁾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에 관하여 겸손히 생각해야 한다는 것과 자기 義에 얼마 간이라도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과 두 가지를 동시에 결합하는 자들은 지금까지 악질적인 위선을 가르치고 있었다고 깔뱅은 비판하고 있다.

우리는 자기 안에 무슨 자랑할 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모든 것을 짓밟아 버리지 않는 한 당연히 품어야 할 겸손한 생각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한 백성에게 구원을 주시고, 교만한 눈을 낮추시리라(시 18:27).” 는 말을 들을때 그것은 첫째로, 구원에 들어가는 문은 우리가 일체의 교만을 없애고 참된 겸손을 취하지 않는 한 개방될 수 없다는 것과 둘째, 여기서 말하는 겸손이라는 것은 우

¹⁵¹⁾ Ibid., III-xii-6.

리의 권리 가운데서 일부분을 주님께 양보하는 것 같이 보이는 겸양이 아니고, 도리어 자기가 비참하고 가난하다는 것을 중심으로 느끼고 죽게 되었구나 하고 쓰러지는 거짓없는 순종과 복종을 말한다.¹⁵²⁾ 깔뱅은 겸손과 자기 지식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반복했다. 겸손없는 자기 인식은 교만하게 만들고 모든 잘못의 근원이 된다고 했다.¹⁵³⁾

세째는 두려움과 순종이다. “겸손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향할때 생겨나는 결과라면,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할때 일어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시 11:10).” 하였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필수 조건이다.”¹⁵⁴⁾ 깔뱅이 말하는 “하나님 경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그의 은혜를 알게 하는데 동참케 하는 경외이다.”¹⁵⁵⁾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때까지 그들은 결코 하나님에게 자진해서 봉사하는 순종은 없을 것이라고 깔뱅은 주장하고 있다. 깔뱅에 의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신뢰와 경외심을 수반한다.”고 하였으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회미한 일 반적인 존경은 할 수 있지만 극소수 만이 하나님을 진실로 경

¹⁵²⁾ Ibid.

¹⁵³⁾ Ibid., p.35. I-i-1;p.241. II-i-1.

¹⁵⁴⁾ Ibid., p.39. I-ii-1.

¹⁵⁵⁾ Ibid., p.41. I-ii-2.

의하는 것이라,” 고 보았다.¹⁵⁶⁾

사람이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회개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회개란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움으로 부터 나온다”고 갈렙은 생각하기 때문이다.¹⁵⁷⁾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회개의 원인이라”고 했다.¹⁵⁸⁾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형벌을 두려워 해서가 아니고, 죄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불리하게 한다는 것으로 알고 미워하고 가증스럽게 생각하는 때를 말하는 것이다.

갈렙이 인용한 솔로몬이 뜻하는 두려움은 더 우리를 조심성있게 만들어 주는데 “그것은 우리를 괴롭혀서 망하게 만드는 공포가 아니고, 마음이 자신 안에서 혼잡해질 때 하나님 안에서 소생함을 얻으며, 자기를 버려 겸손히 주 안에서 일어나게 되며 자기를 저 버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통하여 소생함을 얻는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다.”¹⁵⁹⁾

여기서 갈렙이 말하는 두려움은 “노예로서의 두려움이 아니라 자녀로서의 두려움이다.”¹⁶⁰⁾ 주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

¹⁵⁶⁾ Ibid.

¹⁵⁷⁾ Ibid., p.599. III-iii-7.

¹⁵⁸⁾ Ibid.

¹⁵⁹⁾ Ibid., pp.568-569. III-ii-22, 23.

¹⁶⁰⁾ Ibid., p.573. III-ii-27.

여 그에게 아버지로서 순종을 해야 할 때 그것을 “공경”이라 했고, 주님으로서 그에게 드리는 봉사를 ‘두려움’이라고 불렀다. 즉, 그는 말하기를 “아들은 그 아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쥬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쥬대 나를 두려워 함이 어디 있느냐? (말 1:6)”고 했다. 그러므로 주님을 두려워 함이 우리에게 있어서는「공경」과「두려움」을 합한 경외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¹⁶¹⁾ “믿음의 순종보다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시는 섬김은 없다”고 말한다. 여기서 순종의 본질이 무엇이나고 묻는다면 꺾뻥에 있어서 그것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확증하신 것을 경외함으로 받아 들이는 것”이라 본다.¹⁶²⁾

넷째는 신뢰와 의지이다. 겸손의 의미가 ‘자기신뢰’ ‘자기의지’를 버리는 것이라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만을 의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신뢰와 의지가 없이는 바른 신앙이 없다고 꺾뻥은 생각한다. 그래서 때때로 믿음은 신뢰와 같은 말로 사용하기 까지 한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대해서 갖는 신뢰와 의지의 감정이 바로 믿음이라고 본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요, 보지 못하는 것

¹⁶¹⁾ Ibid., p.572. III-ii-26.

¹⁶²⁾ 이수영, “꺾뻥의 신앙론” op.cit., p.117.

들에 대한 신념이다. 믿음은 항상 미래를 지향하고 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이다. 사람이 무엇을 믿기 때문에 생기는 미래가 아니라 사람이 믿기 전에 이미 하나님 마련해 두신 미래이다. 바라는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다만 그 주심이 확실하다는 것을 믿을 것 밖에 없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비참한 지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전적으로 주님 의지하기를 배워 하나님 없이는 바람보다 더 불안하고 꺼져 버린것 같이 자각할 때”¹⁶³⁾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된다.

“비참한 재앙으로 부터 우리를 구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해방의 방도는 하나 밖에 없는데, 그것은 속죄주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그의 손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의 무한하신 자비와 긍휼로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데, 우리가 이러한 긍휼을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확고 부동한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의지할 때에 우리를 도와 주시고자 하신다”는 것이다.¹⁶⁴⁾

다섯째는 간구이다. 성령은 기도할 때 신뢰를 갖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신다. “사실 그는 우리가 두려움 없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기도할 말까지 공급해 주시

¹⁶³⁾ Ibid., p.568. III-ii-22.

¹⁶⁴⁾ Ibid., p.538. III-ii-1.

는 것이다.”¹⁶⁵⁾

신뢰와 의지로 하나님을 감히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찾는 것은 진정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만 있는 것이다”¹⁶⁶⁾ 고 하는 갈뎡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간구하고 요청함이 없이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선을 베푸시는 자라고 아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하며,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고 간구하는 행위가 믿음이라,”¹⁶⁷⁾ 고 본다. 마치 자식이 항상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듯 간구가 흘러 나오지 않는 믿음은 “마치 어떤 사람이 보화가 있는 것을 알고서도 그것들이 땅밑에 묻혀 숨겨있으며 등한히 하고 있는 것과 같아서 아무 유익이 없을 것이라”¹⁶⁸⁾ 고 갈뎡은 강조한다. 믿음의 창조자인 성령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확증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신뢰와 용기를 주신다.

갈뎡은 「기독교강요」 제 3권 20장 전장에서 정력을 기울여 기도에 대해 자세히 논하였다.¹⁶⁹⁾

갈뎡은 말하기를 “기도는 신앙의 주된 훈련이고 우리는 이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¹⁷⁰⁾ 고 하였

¹⁶⁵⁾ Ibid., p.540. III-i-3.

¹⁶⁶⁾ Ibid., p.555. III-ii-11.

¹⁶⁷⁾ Ibid., p.559. III-ii-13.

¹⁶⁸⁾ Ibid., p.850. III-xx-1.

¹⁶⁹⁾ Ibid., pp.850-920 참고, III-xx-1 ~ 52.

¹⁷⁰⁾ Ibid., p.850. III-xx-1.

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는 올바른 기도의 법칙들을 논하였다. 첫째는 하나님 경외다.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알맞도록 되어야 한다.”¹⁷¹⁾ 둘째는 통회하며 자기의 궁핍을 철저히 느끼며 기도해야 한다. 세째 법칙은 우리 자신안에 있는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겸손히 용서를 구할 것이며, 네째는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것,”¹⁷²⁾ 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서는 불완전한 기도까지도 들어 주신다.”¹⁷³⁾ 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갈뱅은 “죽은 성자를 중보로 세움은 그리스도의 중보직을 박탈하는 오류임을” 반박하고 있다.¹⁷⁴⁾

한편 갈뱅은 “제네바 교회의 요리문답”에서도 아동들을 훈련할때 기도에 관하여 묻고 대답했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주기도”에 관해서 가르치고 있다.¹⁷⁵⁾

여섯째는 기다림과 소망이다. 신앙의 본질을 “약속의 실체”¹⁷⁶⁾란 말 이상 더 명확히 설명할 길이 없다고 보고 있

¹⁷¹⁾ Ibid., p.853. III-xx-4.

¹⁷²⁾ Ibid., p.862. III-xx-11.

¹⁷³⁾ Ibid., p.870. III-xx-15.

¹⁷⁴⁾ Ibid., p.878. III-xx-21.

¹⁷⁵⁾ John Calvin, Theological Treatises, op.cit., pp.119-129.

¹⁷⁶⁾ John Calvin, Institutes, p.588. III-II-41.

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확실하고 틀림없이 소유하는 것인데, 그것들의 소유에 대한 확신은 소망 가운데 자리잡고 있다.”¹⁷⁷⁾

“신앙이 살아있는 곳에는 어디나 그것과 함께 영원한 구원의 소망이 그 불가분의 동료자로서, 아니 오히려 그 신앙 자체로 부터 소망을 낳아 주며 생산해 주는 자로서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깔뱅은 보고 있다.¹⁷⁸⁾ 우리가 아무리 신앙에 관하여 웅변적으로 논한다 할찌라도 이 소망을 제거해 버리면, “우리는 아무 신앙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만일 신앙이 하나님의 진리에 관한 확신이며 우리에게 거짓말로 속이지도, 미혹하지도 못한다고 한다면, 이러한 확실성을 파악하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들을 이행해 주실 것을 진정 대망하게 될 것이며 이 약속은 그들의 확신에 의하면 절대 참될 수 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망이란 결국 신앙이 하나님께서 진정 약속해 준 것으로 확신하고 있는 것들을 기대하는 것 외에 아무 것도 아닌 것”이라고¹⁷⁹⁾ 깔뱅은 말한다. 그리하여 신앙은 하나님을 참된 분으로 믿는 일이요, 소망은 그의 진리가 나타나게 되는 때를 기다리는 것이요, 또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¹⁷⁷⁾ Ibid.

¹⁷⁸⁾ Ibid., p.590. III-II-42.

¹⁷⁹⁾ Ibid.

되심을 믿는 것이며 소망은 그가 우리에게 대하여 아버지가 되심을 항상 친히 보여 주실 것을 기다리는 것이다.

신앙은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는 것이요, 소망은 그 영생이 언제가는 실현될 것이라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요, 또 신앙은 소망이 의지하고 있는 기초이고, 소망은 신앙을 키워 주고 붙들어 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미 믿고 있는 자 외에는 하나님으로 부터 아무 것도 바랄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 신앙의 연약함도 끈덕진 소망에 의해서 유지되고 키움을 받음으로써 피곤하여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¹⁸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이 많은 시험을 받고 흔들리게 되는데, 이때 소망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우리는 잘 알게 될 것이다. 종종 주님께서는 그의 약속들을 연기해서 우리가 기원하는 것보다 오랫동안 마음을 붙잡아 두기도 하신다. 이 때에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녕 응하리라(합 2:3)”는 말씀에 순종하며 기다리게 되는 것이다.

일곱째는 감사와 찬양이다. 간구와 기다림은 감사와 찬미로 이어져야 한다. 감사할 줄 모르고, 찬양이 나오지 않는 생활은 믿음의 생활이 아니다. 신자들은 하나님께 간구할 적 마다 그

¹⁸⁰⁾ Ibid.

들 스스로의 이름으로는 어떤 것도 얻을 자격이 없음을 자인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때 감사하게 되며 “그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¹⁸¹⁾

물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때 감사하지 않고 받기도 한다. 그러나 갈뱅이 여기서 감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선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양선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으로서 마음으로 부터 나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임을 알고 그들은 행위로 하나님을 찬미하기 때문이다.¹⁸²⁾

또 우리는 “성공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한다.”¹⁸³⁾ 종종 우리는 감사의 보답으로 서원을 할때도 있다. 우리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번의 제사로 사죄와 구원을 받은 감격으로 늘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시 50:23) 혹은 “찬미의 제사”(히 13:15)를 드린다.¹⁸⁴⁾

여덟째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사랑의 샘에서 솟아 나오지 않는 찬양은 어떤 찬양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¹⁸⁵⁾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¹⁸¹⁾ Ibid., p.721. III-x-3.

¹⁸²⁾ Ibid., p.840. III-xix-8.

¹⁸³⁾ Ibid., p.182. I-xiv-22.

¹⁸⁴⁾ Ibid., pp.1443-1445. IV-xviii-16~17.

¹⁸⁵⁾ Ibid., p.888. III-XX-28.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롬 5:8).” 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 1서 4:16).”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 1서 4:10-11).” 하나님을 사랑함은 우리의 정결한 삶과 이웃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구현됨을 잊어서는 안된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웠느니라 (롬 13:8)”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 “믿음과 사랑은 필요한 것이지 완전한 것이 아니다.”¹⁸⁶⁾ 고 깔뱅은 말하고 있으며, “사람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 하지 않는 한 모든 점에 있어서 사랑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¹⁸⁷⁾ 고 그는 말하고 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은 자신들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아주 분명하다.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자신을 위해서 살고 노력하는 자기 최선의 그리고 가장 거룩한 생활을 사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 만을 위해 살고 자신의 유익 만을 위해서 생각하

¹⁸⁶⁾ Ibid., p.149. IV-xvii-42.

¹⁸⁷⁾ Ibid., p.416. II-viii-53.

고 추구하는 자보다 더 악하고 부정되게 사는 자는 없을 것이다.”¹⁸⁸⁾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비추어 율법의 원리들을 살펴 본다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물론 제일 좋은 것은 우리의 영혼 전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가득차 있어야 한다. 여기서 부터 이웃 사랑이 직접 흘러 나오는 것이다.”¹⁸⁹⁾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중심으로 부터의 사랑이다. 우리가 외적으로 볼 때에는 이웃에게 대한 모든 의무를 다하고 있으면서도 아직 그것들을 다하는 참 방법으로 부터는 멀리 떠나있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노엽게 해서는 안된다. “사랑 그 자체도 신앙의 준수 아래 있어야 한다.”¹⁹⁰⁾ 결국, 갈뱅은 “우리의 이웃 때문에 하나님을 손상케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인 것이다. “형제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없다.”¹⁹¹⁾는 것이 또한 갈뱅의 주장이다.

¹⁸⁸⁾ Ibid., p.417. II-viii-54.

¹⁸⁹⁾ Ibid., p.415. II-viii-51..

¹⁹⁰⁾ Ibid., p.845. III-xix-13.

¹⁹¹⁾ Ibid., IV-xviii-38.

그러나 “선한 일은 우리가 중생 변화되지 않는 한 시작되지 않으며,”¹⁹²⁾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내적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외적으로 역사하실 때 가능하다.”¹⁹³⁾ 그러나 하루 아침에 다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함을 받았다 할찌라도 우리 속에는 죄의 찌꺼기가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에 육신의 삶을 마칠 때 까지 배움은 계속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갈뱅의 인간이해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고찰해 보았다.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갖춘 창조 본래의 인간의 모습과 하나님을 아는 인식 능력을 상실한 타락 후의 인간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의 모습을 살펴 보았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갈뱅의 인간이해를 바탕으로 갈뱅의 신학이 암시하는 기독교 교육의 목적과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을 고찰하려고 한다.

¹⁹²⁾ Ibid., II-iii-6.

¹⁹³⁾ Ibid., II-iv-7.

Ⅲ. 깔뱅의 신학이 암시하는 기독교교육의 목적과 방법

지금까지 우리는 깔뱅의 인간 이해를 고찰해 보았다. 깔뱅에 의하면,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흠 없이 창조 되었다”는 것이다.¹⁹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타락전 원래의 인간은 순전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다. 또한 “만일 자기가 택하기만 했다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었다.”¹⁹⁵⁾ 그러나 그는 자유 의지의 잘못된 사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 그 결과 죄를 짓게 되었으며, 인간의 본래적 모습을 가장 포괄적으로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 버리게 되었다. 그 때문에 명석했던 지각이 우매하게 되었고 마음이 부패하여 인간은 자연을 통하여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아버지 되시며 구속자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인간은 아직도 “짐승이나 다른 피조물로 부터 구별되게 하는 이성의 우월성은 가지고 있다.”고 깔뱅은 주장

194) *Ibid.*, I-XV-1.

195) *Ibid.*, I-XV-8.

한다.¹⁹⁶⁾ 즉 이것은 인간은 사회를 양육하고 보존할 수 있는 능력 뿐만 아니라 예술과 과학면에 있어서도 지성의 힘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배울 힘과 소질이 타락한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⁹⁷⁾ 한 걸음 더 나아가, 꺾뻥은 모든 인간에게 ‘종교의 씨’가 심어져 있어서 막연하게나마 神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나 신적인 것에 대한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 졌다고 본다.¹⁹⁸⁾ 인간의 가능성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꺾뻥에 있어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의 비밀, 구원, 참된 의, 경건, 내생에 관한 지식등 영적인 일들에 관해 온전하게 아는데 있어서는 전적으로 무능력하다.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는 이 무능력을 해결할 수가 없다고 꺾뻥은 주장한다.¹⁹⁹⁾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 속에서만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딤후 3:16)”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섭리를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²⁰⁰⁾ 성경에 나

196) Ibid., II-ii-12.

197) Ibid., II-ii-13.

198) Ibid., I-xv- 6.

199) Ibid., II-vl- 4.

200) Ibid., I-xvi- 6.

타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십자가의 사건은 죄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것을 의미한다.²⁰¹⁾ “아들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며(요 1:12)” 또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요 3:16)”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갈뎡의 신학이 암시하는 교육의 가능성을 알아 보고자 한다.

A. 기독교교육의 목적

위에서 논한 창조 본래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으며, 지각의 명석함과 마음의 끈음을 소유하고 있었다. 또 인간은 타피조물과 구별되는 어떤 우월성을 갖고 있었으며, 하나님과의 관계속에 있었다.

이와 같이 순전성을 지닌 인간이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게 되었고, 명석했던 지각은 우둔하게 되고, 끈은 마음은 심히 부패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인간은 하나

201) Ibid., II-vi-1.

님을 떠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다. 즉,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에 있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의 비밀, 구원, 참된 의, 경건, 내생에 관한 지식 등 영적인 일들을 아는데 있어서는 전적으로 무능력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갈뻥 신학이 암시하는 교육은 자연히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함”²⁰²⁾을 목적으로 하게 된다. 갈뻥에 있어서 하나님 형상의 회복은 구원을 의미한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화의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됨을 갈뻥은 강조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갈뻥이 암시하는 교육의 목적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구원과 성화의 의미를 간단히 다뤄 보고자 한다.

1. 구원의 의미

구원의 의미는 ‘전져 낸다’는 뜻이다. 죄에서 죄로 인한 죽음에서 전져냄이다. 이런 의미의 구원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가져올 수 없다. 이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를 알고 그의 뜻대로 살아 가는 것이 구원이요,

²⁰²⁾ Ibid., III-iii-9

영생의 길이라고 갈뎡은 말한다.²⁰³⁾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의 노예가 되었던 인간이 그리스도의 증보와 아버지되신 하나님의 용서로 양자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 이 양자됨이 곧 중생이요,²⁰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고후 5:17).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은혜로 의롭다 인정하신다. 이 의인된 자가 중생한 자요, 중생한 자가 양자된 자요, 양자된 자가 새로운 피조물이며 구원 얻은 자이다. 구원 얻은 자는 진정한 자유와 영생이 그에게 확보된다.²⁰⁵⁾

그러나 구원 얻은 자라도 부패한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한 한순간이나 짧은 기간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온전히 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기독교 교육의 둘째 목적인 성화의 삶이 필요하게 된다.

2. 성화의 의미

타락한 인간이 구원의 약속을 깨닫고, 영생의 유업을 보장 받는다고 해도,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기에는 불충분하다. 왜냐하면 그 파괴됨이 극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성화의 삶을 살아야

203) Ibid., II-xvi-2.

204) Ibid., III-i-4.

205) Ibid., III-xix-2, 7.14.

되는 것이다.

이 성화의 삶은 믿는 자의 생애를 통하여 계속해서 일어나야 한다. 왜냐하면, 구원 얻은 사람이라 할찌라도 그 지성의 우둔함과 마음의 부패가 극심함으로 구원 받은 즉시 거룩한 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믿는자(義認된 자)는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고백한 바와 같이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아야 한다(고전 15:31).”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회개와 성화가 조건이 되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의인되었으므로 회개와 성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이다.²⁰⁶⁾

깎쟁이 정의한 회개는 “우리의 생활이 전적 하나님께로 전향하는 것인데, 그 전향은 그를 순결하고 진심으로 경의할 때 일어나는 것이요, 또한 그것은 우리의 육신과 옛 사람이 죽는 것이며, 성령에 의해서 새로 사는 것이다.”²⁰⁷⁾

이처럼 회개는 첫째로 하나님께 대한 경건을 의미한다. 둘째는 사람에게 대한 사랑의 의무를 하게 하는 것이다. 셋째는 삶에 있어서 거룩함과 순결을 가져오는 것이다.

기독교 교육의 목적인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위한 구원과 성화의 삶을 위하여 기독교 교육이 수행해야 할 구체적

206) 이형기, 종교개혁신학사상. op.cit., p.426.

207) Institutes, III-iii-5.

인 목표는 무엇이겠는가?

3. 기독교 교육의 구체적인 목표들

칼뱅의 신학이 암시하는 교육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구체적 수행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한 인간 속에서 전적으로 말소되고 파괴된 것은 아니나 그 부패가 너무 심하여 남아 있는 형상까지도 무서울 만큼 추악하게 기형이 되어 버렸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그 형상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칼뱅이 주장하는 것이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의하여 얻는 중생으로 부터 된다는 사실을 학습자에게 알게 해야 한다.²⁰⁸⁾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임을 알게 한다. 하나님은 그 자신을 단순히 창조주로 보여 준다(창 1:1). 하나님은 그가 능력으로 우주를 창설하신 것처럼 그의 무한하신 능력으로 이 세상을 유지하고 계시며, 특히 공의와 심판으로 인류를 다스리시며, 그의 자비로 용서하시고, 그의 보호로써 인류를 다스리시며,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빛과 지혜와 공의와 권능, 정직, 참된 진리, 어느 하나라도 그로 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 없고 그에게 원인을

²⁰⁸⁾ Ibid., I-xv-4.

두지 않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갈뱅의 주장이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그로 부터 바라고 구하여 한 번 받은 것은 그에게 감사함으로 은혜에 보답하는 것을 배워야 함을 학습자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

셋째는, 갈뱅에 있어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나의 개인적 관계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나 자신의 참 모습을 깨닫게 된다. 이때에 발견되는 것은 타락한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모습인데, 곧 사악하고, 연약하며, 우매하고, 교만한 존재라는 인식이다. 이러한 초라하고 부끄러운 자기 인식은 더욱 크신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을 재 발견하는 데로 되돌려 져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학습자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발견에서 오는 진정한 겸손을 소유케 해야 한다.

네째는, 회개케 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야 된다. 겸손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향할 때 생겨나는 결과라면,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할 때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갈뱅이 말하는 "하나님 경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그의 은혜를 알게 하는데 동참케 하는 경외이다.²⁰⁹⁾

다섯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해야 한다. 겸손의 의미가 '자기 신뢰,' '자기 의지'를 버리는 것이라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 만

209) Ibid., I-ii-2.

을 의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신뢰와 의지가 없이는 바른 신앙이 없다고 짚뽕은 생각한다.

여섯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간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덧붙여 성령은 기도할 때 신뢰를 갖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심을 학습자에게 알게 한다 (롬 8:15, 갈 4:6)²¹⁰⁾ 짚뽕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간구하고 요청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모든 선을 베푸시는 자라고 아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하며,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고 간구하는 행위가 믿음”이라고 본다.²¹¹⁾

일곱째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게 해야 한다. “믿음의 본질을 ‘약속의 실제’란 말 이상 더 명확히 설명할 길이 없다”고²¹²⁾ 짚뽕은 보고 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확실하고 틀림없이 소유하는 것인데, 그것들의 소유에 대한 확신은 소망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²¹³⁾

210) Ibid., III-i-3.

211) Ibid., III-ii-13.

212) Ibid., III-ii-41.

213) Ibid.,

신앙이 살아 있는 곳에는 어디나 그것과 함께 영원한 구원의 소망이 그 불가분리의 동료자로서, 아니 오히려 그 신앙 자체로 부터 소망을 낳아 주며 생산해 주는 자로서 있어야 하는 것²¹⁴⁾

이라고 칼뱅은 보고 있다.

여덟째는 감사와 찬양의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간구와 기다림은 감사와 찬미로 이어져야 한다. 감사할 줄 모르고, 찬양이 나오지 않는 생활은 믿음의 생활이 아니다. 신자들은 하나님께 간구할 적마다, 그들 스스로의 이름으로는 어떤 것도 얻을 자격이 없음을 자인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때, 감사하게 되며 “그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²¹⁵⁾

아홉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해야 한다. “이 사랑의 샘에서 솟아 나오지 않는 찬양은 어떤 찬양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²¹⁶⁾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214) Ibid., III-ii-42.

215) Ibid., III-x-3.

216) Ibid., III-xx-28.

(롬 5:8) ”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 1서 4:16).”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요한 1서 4:11).” 그렇기 때문에 학습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요한 1서 4:11) ”는 사실을 가르쳐야 한다.

지금까지 기독교 교육의 목적 및 수행 목표들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이제 우리는 이들의 성취가 갈뎡의 신학에 있어서 어떻게 가능한가의 문제에 직면한다. 그러므로 다음 장에서는 이 문제 즉 교육의 방법을 다루고져 한다.

B. 기독교 교육의 방법

이제 우리는 앞장에서 살펴 본 기독교 교육의 목적을 어떻게 성취할 수 있는가를 고찰하겠다.

앞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타락한 인간 스스로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 구원 되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우리 속에 일어나는 신앙에 의해서만 될 수 있다.

신앙이란 갈뎡에 있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데 있다 (요 17:3).”²¹⁷⁾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자로, 또 영혼의 아

²¹⁷⁾ Ibid., III-ii-3.

버지로 알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위하여 주신 분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진실로 아는 것이다.”²¹⁸⁾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이것을 증거하는 말씀이 필요하다”고 칼뱅은 말한다.²¹⁹⁾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성령의 비취심이 없이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²²⁰⁾ “성령께서 내적 교사로서 우리 마음 속에 들어와 비추어 주지 않는 한, 말씀이 우리 마음 속에 침투해 들어 올 수가 없는 것이다.”²²¹⁾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신앙이 우리들에게 확립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 형상의 회복은 성령의 역사와 말씀을 통한 교육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이 두 방법에 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1. 성령의 역사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예수도 이 땅에 계시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 주신

²¹⁸⁾ Ibid., III-ii-6.

²¹⁹⁾ Ibid.

²²⁰⁾ Ibid., III-ii-33.

²²¹⁾ Ibid., III-ii-34.

다 (요 14:16) .

성령이 하는 일은 많다. 성령은 하나님과 함께 창조의 역사도 하셨고 (창세기 1:2, 욥기 33:4), 예수와 함께 구속 사업에도 동참하셨다. 그러나 두드러진 역사는 구원을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을 수 있도록 사람의 마음을 감화시키고, 깨닫게 해 준다. 또 성령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리스도가 전해 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요 14:26),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며 (요 16:13),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하신다 (요 15:26). 그리고 성령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며 (요 3:3,5),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한다 (고전 12:3) .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고 그로 부터 떠나 있는 한 아무리 그가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일을 했다 해도 그가 모든 것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나 가치가 없다.²²²⁾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묶어 주는 일이다. 그와 하나로 연합해 주시는 것은 “오직 성령의 은혜와 권능으로서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는 것이며, 그리하여 우리는 그 밑에서 보호를 받고 한편 그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²²³⁾

²²²⁾ Ibid., III-i-1.

²²³⁾ Ibid., III-i-3.

물론 우리가 이것을 얻는 길은 신앙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다. 신앙이란 하나님께로 부터 오는 선물이다(엡 2:8). 또한 신앙은 성령의 중요한 역사이다. 바울은 “성령을 내적 교사”라 하고²²⁴⁾ 그 힘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구원의 약속으로 침투된다고 하였다. 또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데살로니가 인들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살후 2:13)”고 하면서 “신앙 자체는 성령 외에 다른 근원이 없다”고 했다.²²⁵⁾

성령은 입으로 가르쳐 준 것을 우리 마음에 떠오르게 해서 인식시키는 일을 한다. 우리에게 “분별의 영인 성령이 마음의 눈을 열어 주지 않는다면, 빛을 맹인에게 헛되이 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갈방은 말한다.²²⁶⁾

바울은 “만약 그리스도께서 친히 내적교사가 되셔서 그의 영으로서 그에게 주신 자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교사들이 외쳐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²²⁷⁾

따라서 예수는 우리가 이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 것이다(눅 3:16).”

²²⁴⁾ Ibid., III-i-4.

²²⁵⁾ Ibid.

²²⁶⁾ Ibid.

²²⁷⁾ Ibid.

그리하여 “우리를 그의 복음 안에서 신앙의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고 또 중생케 해주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신 것이다(고후 5:17). 또 그는 우리를 성결케하고 세속적인 불결로 부터 정결케 해주어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전으로 삼아 주시는 것이다(고후 6:16).”²²⁸⁾

“성령에 의하여 우리 육신의 정욕이 날이 갈수록 죽어져 우리는 진정 성화가 되는 것이다.”²²⁹⁾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화되어 생활의 성결을 향하여 전심하게 된다.”²³⁰⁾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일체의 은사를 향유하고 누리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묶어주는 성령” 때문인 것이다.²³¹⁾ 그런데 성령은 설교말씀과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시킨다.

2. 말씀을 통한 교육

a. 성경말씀을 통한 교육.

하나님은 “택한 자녀들에게 성경말씀을 통해서 가르치

²²⁸⁾ Ibid.

²²⁹⁾ Ibid., IV-xvi-9.

²³⁰⁾ Ibid., III-xi-1.

²³¹⁾ Ibid., III-i-1.

신다.”²³²⁾ “일상생활 속에서 말 (Word)이 사람들 사이에서 의사 소통의 다리인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그분과 인간 사이의 의사 소통의 매개체인 것이다.”²³³⁾ 우리는 이 거룩한 기록의 매개체를 통하여 우리 자신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다.

갈뱃은 신앙과 말씀과의 관계를 논할 때 “말씀 없이는 신앙도 없다”²³⁴⁾ 고 하였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신앙과 말씀 사이에는 뗄 수 없는 영구적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다. 이 관계는 마치 태양광선을 그 원천인 태양으로 부터 뗄 수 없는 것과 같이 서로 관계가 있다. 이런 이유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에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사 55:3)” 고 하셨으며, 요한도 말씀이 신앙의 원천이라는 것을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고 한 것이다 (요 20:31).

²³²⁾ Ibid., I-vi-1.

²³³⁾ 버나드 앤더슨. The Unfolding drama of the Bible. 감찬 한국선교교육 연구원역, 무엇을? 기독교 교육 내용을 중심하여 (성광문화사, 1982), p.10.

²³⁴⁾ Institutes, III-ii-6.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딤후 3:15~17).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인간들을 교육하신다. 우리가 이 성경을 접하는 방법에 있어 “개별적으로도 읽도록 하지만 또한 우리들에게 지도자들 보내어 도와 주교자 하시는 것이다.”²³⁵⁾ 칼뱅은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잘 아시고, 자신의 존엄으로 우리들이 경악할까 봐 인간미가 있는 방법으로 해설자를 통하여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시고자 하신 것이다. 이와 같은 대단히 친절한 교육 방법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적절한가를 모든 경건한 사람들은 체험으로 알고 있는 것이다.²³⁶⁾

라고 하였다.

b. 설교 말씀을 통한 교육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과 영원한 복락에 참여하게 되

²³⁵⁾ Ibid., IV-i-5.

²³⁶⁾ Ibid.

는 길은 복음을 믿는 신앙 안에서 이다.”²³⁷⁾ 그러나 우리에게
는 무지하고 나태한 속성이 있는 고로 우리의 마음에 신앙
이 생겨 난후 그 신앙이 점점 돈독해지는 데에는 외부로 부
터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신 하나
님께서서는 그 결점을 보강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서는 목사와 교사를 세우시고 (엡 4:11)
그들의 입을 통하여 자기 백성들을 가르치신다.”²³⁸⁾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씀하실때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인간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참으로 어떤 종류의 도움이나 도구 없이
도 스스로 혹은 천사들을 통하여 그것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들을 통해 하시기를 더 좋아한 많은 이유들이 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이 방법을 사용하심으로써 우리 인간
을 얼마나 중요시 하시는가를 드러내고자 함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들 가운데서 자신을 대리하여 사신(使臣)의 직
분(고후 5:20)을 이 세상에서 행할 자를 선택하시고 그를 자
신의 감추인 뜻의 해설자나 또는 자신을 대표하는 자로 삼으
심으로써 인간을 존중하시는 것이다.²³⁹⁾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에 복종하게 함

²³⁷⁾ Ibid., IV-i-1.

²³⁸⁾ Ibid.

²³⁹⁾ Ibid., IV-iii-1.

으로써 겸손을 길러 준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말씀에 대한 복종에 익숙해지게 하시는 것인데, 그 말씀은 우리와 같은 수준의 사람이나 또는 우리보다 세상적인 수준이 낮은 사람을 통하여 전해 지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도록 한다. 만일 하나님께서 하늘로 부터 친히 말씀하신다고 하시면, 그의 거룩하신 말씀이 모든 귀와 모든 영혼들에게 지체없이 경건하게 받아 들여질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이는 경의로운 일이 못된다. 왜냐하면 누가 그의 권능의 임재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누가 그 존엄을 한 번 보기만 하고도 끊어 옆드지 않을 수 있으며 또한 그 무한한 광채를 보고 정신을 잃지 않을 사람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흠으로 빛어진 보잘 것 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할때 그 사람이 우리보다 나은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사역자인 그 사람에게 겸손하게 귀를 기울여 듣게 되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경건과 복종을 가장 잘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신적 보배를 연약한 '질그릇' (고후 4:7)에 감추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보배를 얼마나 존중하는가를 시험하시는 것이다.²⁴⁰⁾

세째로, 한사람이 목자로 세움을 받은 후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제자로 임명된 자들이 한 입으로 부터 같은 교

²⁴⁰⁾ Ibid.

리를 받는 일이 우리 가운데서 형제 상호간의 사랑을 길러 주는 가장 적절한 골레가 될 것이다.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는 이 유대 속에 있을 때 상호간의 사랑을 키울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갈방은 “천국의 교리를 설교하는 직분이 목사들에게 주어졌다.”²⁴¹⁾ 고 했다. 그러나, 우리에게 신앙을 불어 넣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복음이란 수단을 통하여 행하신다. 구원을 주시는 권능은 하나님께 있으나(롬 1:16) 그것은 복음의 설교에 의하여 나타나며 드러난다.

복음의 말씀이 비록 어떤 인간의 입을 통하여 전해지더라도 하나님의 선언이며, 최고의 법정에서 공포되고 생명책(계 3:5)에 기록되어 하늘에서 준비되고, 확증되고, 확정된 것이라는 사실을 복음의 설교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르칠 수 있다.²⁴²⁾

한결음 더 나아가 기독교 교육 방법의 입장에서 볼 때, ‘말씀의 선포’는 “하나님과 인간이, 인간과 인간이 인격적 존재로 만나게 되는 관계이며, 이 만남 속에서 말씀을 주고 받는 대화이며, 이 대화 속에서 인간의 삶이 변화되는 말씀 사건인 것이다.”²⁴³⁾

²⁴¹⁾ Ibid., IV-i-5.

²⁴²⁾ Ibid.

²⁴³⁾ 은준관의, 어떻게? 기독교 교육방법을 중심으로
(서울: 성광문화사, 1983), p.9.

이런 의미에서, “말씀 속에서 오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만남에서 크리스찬의 존재 혹은 회심이 일어난다.”²⁴⁴⁾ 라고 주장한 제임스 스마트나 “기독교 교육에서 우리는 자신의 존재를 위하여 투쟁하는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서로의 삶 속에 참여 할 기회를 갖는 것”이라고²⁴⁵⁾ 주장한 루이스 셰릴의 주장은 타당한 것이다.

3. 성례전을 통한 교육

우리의 신앙을 돈독하게 하는 데는 복음의 선포와 더불어 성례전이 있다.

성례는 우리 신앙의 약함을 도와 주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그의 선하신 약속들을 우리 마음에 새겨 주시는 외적인 표시이며, 한편 우리 인간편에서는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 자신의 신앙심을 입증하는 것이다.²⁴⁶⁾

²⁴⁴⁾ 김동호, “원죄를 통해서 본 기독교교육의 대상으로서의 인간이해,”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장신대 대학원, 1982. p.90. James Smart, The Teaching Ministry of the Church, p.168. 재인용.

²⁴⁵⁾ Lewis Joseph Sherrill, The Gift of Power (The Macmillan Company, 1963), p.84.

²⁴⁶⁾ Inst., IV-xiv-1.

칼뱅이 「기독교강요」 제 4권 14장에서 19장에 걸쳐서 논한 성례전은 인간의 허약성을 위한 보조물로, 인간의 태만성을 위한 자극물로, 그리고 경건의 훈련물으로써 하나님이 제시한 인간 교육을 위한 하나님의 외적인 방편이며,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이라 할 수 있다.²⁴⁷⁾

칼뱅은 로마교회의 7가지 성례전 가운데 세례와 성찬의 두 성례전만 인정하였다.²⁴⁸⁾ 이 두 성례전 이외에 어느 하나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일이 없기 때문에 신자의 교회는 아무 것도 용인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²⁴⁹⁾ 이는 새로운 성례전을 일으키거나 제정하는 일은 인간의 권능대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칼뱅은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하는데 말씀과 성례전이 동등하다”고 본다.²⁵⁰⁾ 이 두 성례전은 신약시대의 초기부터 세상의 끝까지 지켜지도록 기독교회에 전하여 온 것이다. 세례란 교회로의 입문 또는 믿음의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 성만찬은 그리스도께서 그 믿음의 가족들을 영적으로 기르

²⁴⁷⁾ Ibid., IV-xvii-42. 김수진, “John Calvin의 교육사상연구,” op.cit., p.49. 참고.

²⁴⁸⁾ Inst., IV-xv-1.

²⁴⁹⁾ Ibid., IV-xviii-19.

²⁵⁰⁾ Ibid., IV-xiv-11.

시는 일종의 영적인 음식이다.²⁵¹⁾ 세례는 반복될 수 없으나 성만찬은 되풀이 하여 분배되며, 한번 교회에 가입된 자들은 이로서 자기가 그리스도에 의하여 끊임없이 양육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a. 세례

꺄뻁에 의하면, 세례란 “하나님에 의하여 그의 자녀로 삼으시는 거룩한 인침이며 또한 그리스도와 의 접붙임으로써 새로운 출발”일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로 들어가는 예식이다.²⁵²⁾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수세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는 방편이 된다. 더 나아가서 세례는 또한 수세자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지체의 일부임을 언제나 자각케 함으로써 타락된 육적 생활로 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한다.

또한 세례를 통하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한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인침(seal)의 예전 가운데 선 인간이 하나님의 존전에서 자신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부끄러움을 느끼며 회개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흘린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하여 죄 씻음

²⁵¹⁾ Ibid., IV-xviii-19.

²⁵²⁾ Ibid., IV-xv-1.

을 받는다는 신앙의 고백을 하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통해 또 다른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신다. 이 세례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죽음과 함께, 또한 그 분 안에 있는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이다.²⁵³⁾

세례를 통하여, 예수 밖에서 살던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한다. 세례를 행할때 임재하시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변화된 새로운 생의 출발을 가져 오게 한다. 그래서 갈방은 세례를 “새 생명으로 인간을 재 형성시키는 성령의 은혜”라 하였다.²⁵⁴⁾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세례는 죄의 세계로부터 의의 세계로, 속박에서 자유로, 율법 아래의 죽음으로 부터 성령 안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중요한 과정임에 틀림없다.”²⁵⁵⁾

그리고,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삶에 접붙여진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모든 보배에 참여할 만큼 그 분 자신과 하나가 되었다”는²⁵⁶⁾ 것을 세례는 우리에게 확실히 증거해 준다.

이와 같이 중요한 세례가 어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²⁵³⁾ Ibid., IV-xv-5.

²⁵⁴⁾ Ibid.

²⁵⁵⁾ 정장복, “목회 현장을 위한 세례의 재인식,” op.cit., p.14.

²⁵⁶⁾ Inst., IV-xv-6.

아니다. “성인의 세례를 다루고 있는 성경의 말씀은 유아에게도 적용된다.”²⁵⁷⁾

“유아가 세례에 참여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본다.²⁵⁸⁾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옛날 어린 아이들에게 할례를 베풀도록 하셨는데 (창 17:12ff; 레 12:3) 이 할례에 의하여, 모든 은혜에 어린 아이들이 합당한 자로 참여하도록 하셨다.²⁵⁹⁾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는 유아를 초대하셨고, 축복하셨다.

어린아이들은 장래의 회개와 신앙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 즉 회개와 신앙이 그들 가운데 아직 형성되지 않는 못하였으나, 성령의 은밀한 역사로 이 두 가지 일의 씨가 그들 가운데 심겨지게 된 것이다.²⁶⁰⁾

이런 가운데서 세례를 받은 유아는 성장하여 그것을 이해한다.²⁶¹⁾

²⁵⁷⁾ Ibid., IV-xvi-23.

²⁵⁸⁾ Ibid., IV-xvi-5.

²⁵⁹⁾ Ibid.

²⁶⁰⁾ Ibid., IV-xvi-20.

① 대한 예수교 장로회 헌법에는 입교인의 자녀로서 4세미만 된 자에게 유아세례를 인정하고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 (서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교육부, 1984), p.146. ② 신앙 발달을 연구한 파울러 (James Fowler) 에 의하면, 3세가 되기 이전에는 신앙은 미분화 (Undifferentiated faith) 되어 있다. James W. Fowler, Stages of Faith, Haper & Row, Publishers Inc., 1981), p.121.

²⁶¹⁾ Ibid., IV-xvi-21 (유아세례 교인은 16세가 되어 입교 문답만 하면 성만찬에 참여 할 수 있게 된다. 대한 예수교 장로회 헌법, op.cit., p.146.)

b. 성만찬

이 예전은 주 예수께서 자기의 몸과 피에 의한 성례전을 자기의 교회에서 세상 끝날까지 지키게 하기 위하여 친히 제정하셨다. 이것은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이룩하신 희생을 언제든지 기억케 하시고, 그 안에서 신자들이 영적인 양식을 얻어 장성케 하고, 그와 더불어 가질 교제의 매는 줄이 되고 약속이 되고, 또 이것은 그의 신비적인 몸의 지체로서 서로 교제하기 위하여 정해 주신 것이다.²⁶²⁾

“주 예수는 이 예전을 집행하기 위하여 목사를 택하였다. 그들은 신자들에게 이 예전에 필요한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떡과 포도주를 축사해서 그것을 다른 것과 구별하여 거룩하게 사용한다.”²⁶³⁾

그러나 “신부가 축사하거나 혹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의 실체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실체로 변한다.”²⁶⁴⁾ 고 주장하는 소위 화체설은 성경에 모순될 뿐만 아니라 상식과 이성에도 모순된다. 그렇기 때문에 갈방은 제 4차 라테란 공회의 법령에 나타나 있는 화체설 (Transubstantiation) 에 대

²⁶²⁾ 대한 예수교 장로회 헌법, op.cit., p.125.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제 29장.

²⁶³⁾ Ibid., p.126.

²⁶⁴⁾ Ibid., p.127.

하여 '거짓된 화체설'이라 주장하면서 그의 저서 「기독교강요」 제 17장에서 반론을 제기하였다.²⁶⁵⁾ 그러므로 우리는 카톨릭 교도들의 화체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주님께서 제정하신 이 성찬을 행하며 주님을 기념해야 한다. “성찬은 우리의 연합함을 도와 주려고 준비된 기념물이다.”²⁶⁶⁾ 성찬은 완전한 자를 위하여 제정된 것이 아니라, 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에게 신앙과 사랑에의 열의를 깨우치고 분발시키며 수련시키기 위하여, 또한 신앙과 사랑의 결합을 교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성찬에서 주님에 대하여 무엇을 기념하기 원하는가를 우리는 배우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언약을 확신하며 “신앙고백을 하게 된다.”²⁶⁷⁾

성찬식의 교육적인 중요성을 알면서도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대부분의 교회들이 1년에 한번 또는 몇번 성찬식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쉽다. 그것마저도 다음 예배 시간에 쫓겨 너무 형식화된 느낌이 들 때가 있다. 기독교 교육의 측면에서 볼때 이 문제는 앞으로 연구되어 빠른 시일내에

²⁶⁵⁾ Institutes, IV-xvii-14.

²⁶⁶⁾ Calvin, 신약성경주석 8권, p.339 (고전 11:24)

²⁶⁷⁾ Ibid., p.342.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고 본다.

교육의 결과는 생활 속에 나타나야 하며,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내적 역사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교육하신다. 이제 생활을 통한 교육 방법을 고찰하겠다.

4. 생활을 통한 교육

“복음신앙에 의한 義認, 重生, 養子, 救援을 전제하고 일어나는 회개와 더불어 기독교신자는 평생을 통하여 聖化에로 부름을 받았다.”²⁶⁸⁾ 기독교신자는 그리스도의 義로 옷입고, 그 다음 실제적으로 의로워져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질적인 변화가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교육방법으로 회개와 성화, 기도 그리고 자기를 부정하는 것을 짚뽕은 중요시 한다.

a. 회개와 성화의 생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근거에 대해서 짚뽕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자신의 지성이나 의지나 우리자신의 계획이나 행동에 지배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욕을 따라 추구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 그

²⁶⁸⁾ 이형기, 종교개혁 신학사상, op.cit., p.431.

그러므로 가능한한 우리들 자신과 우리들의 모든 것을 망각해야 한다.²⁶⁹⁾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죽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의 모든 행동을 지배케 하여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전 삶은 하나님을 유일한 목표로 하여 분투 노력해야 한다 (롬 14:8) ²⁷⁰⁾

위에서 말한 것처럼 전 삶이 하나님을 유일한 목표로 사는 삶이란 중심으로 회개하는 노력이 있을때 가능하다고 칼뱅은 주장한다. 그에게 있어서 회개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자신에게는 죽는 것” ²⁷¹⁾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 회개는 “우리의 생활이 전적으로 하나님께로 전향하는 것” ²⁷²⁾이다. 이것은 우리의 육신과 옛 사람은 죽고 성령에 의해서 새로 사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중생한 사람 속에 “악의 타다 남은 부싯개가 남아있기 때문에 불같이 정욕이 일어나면 죄를 저지르도록 자

²⁶⁹⁾ Institutes, III-vii-1.

²⁷⁰⁾ Ibid.

²⁷¹⁾ Ibid., III-iii-3.

²⁷²⁾ Ibid., III-iii-5.

죽을 준다.”²⁷³⁾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도 죽을 육체를 벗어 버리기 전에는 언제나 죄가 있는데, 그것은 그들의 육신 속에 공의를 대적하는 불순한 정욕이 깃들여 있기 때문이다.²⁷⁴⁾

이것 때문에 성령께서는 복음적인 회개를 불러 일으키며 적극적으로는 성화를 불러 일으킨다. “이 회개와 성화는 믿는자의 전 생애를 통하여 계속해서 일어나야 한다. 믿는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와 성화가 조건이 되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의인되었으므로 회개와 성화가 일어난다.”²⁷⁵⁾ 회개와 성화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된다.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케 하며 그를 의지하고 신뢰케 한다. 또한 회개를 통한 구원의 감격 속에서 진정한 감사와 찬양이 나오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몸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된다.

b. 기도생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배운 것을 우리가 그 안에서 추구하고 간구한다.”²⁶⁷⁾ 그러므로 기도하는

²⁷³⁾ Ibid., III-iii-10.

²⁷⁴⁾ Ibid.

²⁷⁵⁾ 이형기, 종교개혁 신학사상. op.cit., p.426.

²⁷⁶⁾ Institutes, III-xx-1.

혜택을 통하여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富를 소유할 수 있다.”²⁷⁷⁾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연락으로 이를 통하여 사람들은 하늘에 계신 성소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에 대한 요구”를 호소하기 때문이다.²⁷⁸⁾ 요엘 선지는 “누구든지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였다(요엘 2:32).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다. 또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의 권능과 하나님의 자비 등의 임재를 불러 구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의 양심에는 비상한 평안과 안정이 온다.”고 깔뱅은 주장한다.²⁷⁹⁾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찾고, 사랑하고, 섬기기 위하여 진지하고 열렬한 소원으로 불타게 된다.”²⁸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마음 중심으로 부터 참된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이들 은혜가 하나님의 손으로 부터 온다는 것”을 일깨워 주신다(시 145:15-16)²⁸¹⁾

깔뱅은 기도를 “경건한 자녀들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²⁷⁷⁾ Ibid., III-xx-2.

²⁷⁸⁾ Ibid.

²⁷⁹⁾ Ibid.

²⁸⁰⁾ Ibid., III-xx-3.

²⁸¹⁾ Ibid.

대화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²⁸²⁾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알맞도록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²⁸³⁾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²⁸⁴⁾ “전 신경을 총 집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²⁸⁵⁾

또한, 깔뱅은 “진정한 기도는 회개를 요구한다”고 하였다.²⁸⁶⁾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지 않기 때문이다. 또 깔뱅은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²⁸⁷⁾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²⁸⁸⁾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기도를 위한 스승으로 성령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를 도우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²⁸⁹⁾ 우리의 불완전한 기도까지도 들어 주신다”고 깔뱅은 말하고 있다.²⁹⁰⁾

²⁸²⁾ Ibid., III-xx-16.

²⁸³⁾ Ibid., III-xx-4.

²⁸⁴⁾ Ibid.

²⁸⁵⁾ Ibid., III-xx-5.

²⁸⁶⁾ Ibid., III-xx-7.

²⁸⁷⁾ Ibid., III-xx-8.

²⁸⁸⁾ Ibid., III-xx-11.

²⁸⁹⁾ Ibid., III-xx-5.

²⁹⁰⁾ Ibid., III-xx-15.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이다.”²⁹¹⁾

결과적으로 기도를 통한 교육방법이 학습자에게 주는 것은 구원의 확신과 성화의 삶을 살게하는 것이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기도를 통하여 학습자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두려움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가 필요한 것을 아버지께 요구한다. 또 아버지 앞에서 잘못된 것을 회개하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소망가운데 기다리며,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한다. 또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가지게 하며, 기쁨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의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원동력을 제공한다.

C. 自己否定의 생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²⁹²⁾는 전제로 부터 신자들은 그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자기부정의 생활교육이 유출된다.

자기부정의 삶이란 “하나님의 영광 외에는 일체 생각

²⁹¹⁾ Ibid., III-xx-17.

²⁹²⁾ Ibid., III-vii-1.

도, 말도,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²⁹³⁾

칼뱅은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자기부정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²⁹⁴⁾ 그리하여 그는 우리들에게 “우리들 자신의 본성을 벗어 버리고 우리의 이성파 의지가 하고저 하는 일체를 부정할 것”을 명하고 있다.²⁹⁵⁾ 그 대표적인 것은 ‘불경건’과 ‘세상욕심’이다.

이와같은 자기부정의 원리가 작용할때, “자기부정은 우리 이웃에게 올바른 태도를 갖게 해 준다.”²⁹⁶⁾ 자기 사랑을 없애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며,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되며, 서로 존중하며, “이웃을 위해 봉사토록 해 준다.”²⁹⁷⁾

또 자기부정의 원리를 통하여 “우리는 자신과 자신의 모든 소유를 주님의 뜻에 내 맡기고, 우리 마음의 감정을 그에게 맡겨 순종하도록 해야 한다.”²⁹⁸⁾

더 나아가서 자기부정의 삶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스스로 비참하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자기 분깃에 관하여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는다.”²⁹⁹⁾

²⁹³⁾ Ibid.

²⁹⁴⁾ Ibid., III-vii-2.

²⁹⁵⁾ Ibid., III-vii-3.

²⁹⁶⁾ Ibid.

²⁹⁷⁾ Ibid., III-vii-5.

²⁹⁸⁾ Ibid., III-vii-8.

²⁹⁹⁾ Ibid., III-vii-10.

‘십자가을 지는 것’도 자기부정의 일부분이다. 갈렘은 기독교신자의 삶을 십자가을 지는 것으로 특징 지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셨으나(마 3:17, 17:5), 그 아들의 전생애를 십자가의 삶이 되게 하셨다.”³⁰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역시 제자들을 부르실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라(마 16:24)”고 하셨다.³⁰¹⁾

우리들에게 십자가가 필요한 까닭은 “우리의 교만을 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실감하기 위함이다.”³⁰²⁾

십자가는 우리에게 “인내를 키워주며, 우리를 겸손하게 만든 다음 하나님께만 의지하도록 가르쳐 준다.”³⁰³⁾ 또한 십자가는 아버지의 징계 역할을 하는데, 이것을 통해 회개의 길로 나아가게 한다.³⁰⁴⁾

기록된 성경말씀, 선포되는 설교말씀, 그리고 말씀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부터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순종의 삶이 자율적인 인간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자기

³⁰⁰⁾ 이형기, 종교개혁 신학사상, op.cit., p.434.

³⁰¹⁾ Ibid., III-viii-1.

³⁰²⁾ Ibid., III-viii-2.

³⁰³⁾ Ibid., III-viii-3.

³⁰⁴⁾ Ibid., III-viii-6.

부정의 삶이란 “ 환난과 시련 속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영생의 부활과 영광된 하늘나라의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 을 의미한다.

이제까지 우리는 갈뱅의 신학이 암시하는 기독교 교육의 목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키 위한 구원과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하여 갈뱅의 신학이 암시하는 방법, 즉 말씀을 통한 교육방법, 성례전을 통한 교육방법, 그리고 생활을 통한 교육방법을 고찰하였다.

하나님께서서는 인간을 교육하실 때 이와같은 방법을 사용하셨으며 또 사람들을 사용하셨다. 그러나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내적으로 항상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³⁰⁵⁾ Ibid., III-viii-11.

세워 제네바 시민 교육을 강력하게 실시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 깔뱅이 제네바 시민의 전 생활을 감독할 만큼의 위치에 있었으며, 종교회의를 통하여 충고와 견책을 할 수 있는 자리에 까지 올려 놓았다. 깔뱅이 살고 있던 시대의 문제가 거의 그대로 오늘날에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할 때, 깔뱅의 시민교육 실시를 오늘의 실정에 맞추어 새롭게 적용 시켜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좀더 깊이 연구 되어야 하리라 생각된다.

셋째, 교육내용 중에는 시대의 요청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경되거나 폐지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기독교 교육 내용중 절대로 변경되거나 폐지할 수 없는 '복음'의 내용은 교육과정에서 강조되어야 한다.

넷째, 발달이론이 기독교 교육에 적용되는 것은 좋은 현상이나 '복음'을 전달하는데 반작용을 하지 않아야 한다.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거나 인간의 방법을 지나치게 강조해서는 안된다.

다섯째, "교회가 다소 거룩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해서 분열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³⁰⁶⁾ 수 없이 자주 분열되는 한국교회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역사가 일어나야만 한다.

여섯째, 현세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 교육이 강조되어야 한다. 현실에만 집착하려는 현대인들에게 확실한 내세의 소망을 심어주는 교육이 필요하다. 반면, 병적으로 현실 도피의 내세 중심의 기독교 교육은 지양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 구원과 성화의 삶에 있다고 볼때,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개인 구원과 함께 사회 구원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구원 문제를 많이 다룰 수 없었으나, 갈렙은 제네바를 기독교적 질서 안에

³⁰⁶⁾ Ibid., IV-i-17.

우리의 영혼 속에 우둔한 '종교의 씨'가 남아 있고, 어느정도 양심이 남아 있기 때문에 성령과 말씀으로 조명되어 질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가를 알게 된다. 그러나, 이와같은 사건이 하루 아침에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은 성도들에게도 죄의 찌꺼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일생을 통하여 '성화의 삶'을 살게 함으로 육체를 벗어 버리는 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육하고 훈련하시는 것이다.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종교 개혁자요, 목회자요, 신학자요, 교육자인 갈뱅의 사상에서, 오늘의 한국교회가 명심해야 할 몇가지 사실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지성으로만 아는 지식에서 끝나 버리는 교육에서, 생활에 나타나는, 마음의 확증에서 생기는, 진실한 신앙고백의 교육을 강조해야 한다.

둘째, 성례전을 통한 교육이 보다 강조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갈뱅은 생활의 순결과 성결과 사랑과 평화와 화목에 로 더욱 강하게 이끌어 주는 수단이 성만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주 기념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현실은 여러가지 사정으로 일년에 한번 또는 몇번 성찬식을 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다. 그것마저도 다음 예배 시간에 쫓겨 형식화된 느낌이 들 때가 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연구되어 빠른 시일내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고 본다.

문에 그리스도야 말로 인간회복의 유일한 기관이 되는 것이다. 갈방은 이러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인간관계의 재수립은 완전히 하나님의 은총이며 이를 화해의 개념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

그리스도가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음에 복종하게 되었고, 한편 죽음과 싸우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승리하셨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으로 우리의 이그러지고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으로써 갈방은 회복된 상태를 구원(중생, 의인 養子)이라고 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볼때 갈방의 신학이 암시하는 교육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학습자가 구원에 이르며, 성화의 삶을 살게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만들 것을 돕는 데에 있다.

우리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례전을 통하여, 생활을 통하여 성령께서 내적으로 역사하시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독교 교육의 한계점을 깨닫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성서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야 하며, 성례전을 준수하고, 생활을 통한 기독교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그 결과는 성령께 맡기고 그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한다.

IV. 결 론

지금까지 「기독교강요」를 중심으로 칼뱅의 인간 이해와 기독교 교육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여기서 발견되는 칼뱅의 인간이해는 어디까지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터 출발한 기독교 인간이해로서 인간을 인간의 입장에서 이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이해한 것이다.

인간은 타락 이전의 본래적인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완전하였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 안에서 창조주의 영광을 보는 것을 즐겨 하였다고 칼뱅은 말하고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인간이 교만하여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타락한 인간이 되고 말았다. 이 잘못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한 인간에게 전적 책임이 있다고 칼뱅은 보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섭리로서 인간회복의 길을 마련 하셨는데, 그 유일의 길은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시는 길 밖에 없었던 것이다. 곧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마련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야말로 인간회복에 있어서 원형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동시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것이 가능하기 때

참 고 문 헌

Battles. The Piety of John Calvin. 이형기 역.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 서울 :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86.

Burgess, H.W. An Invitation to Religious Education. Indiana : Religious Education Press Inc., 1975.

Calvin, John. 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 edited by John T. McNeil translated by Ford Lewis Battles. The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Vol. XX-XXI. Philadelphia : The Westminster Press, 1961.

_____. 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 김 문제 역. 기독교 강요. 색인. 제 1, 2, 3, 4 권. 서울 : 혜문사, 1982.

_____. Theological Treatises. Translated with introductions and notes by J.K.S. Reid. The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Vol. XXII. Philadelphia : The Westminster Press, 1954.

_____. Commentary on Genesis. 성서교재 간행사. 구약성서주석 1. 창세기, 1982.

_____. Calvin's Commentary. 성서교재 간행사. 공관복음, 1982.

_____. Commentary on The Gospel According to St. John. 성서교재 간행사. 요한복음 1, 1982.

_____. Commentary on Corinthians. 성서교재 간행사. 코린도전서. 갈라디아서, 1982.

- Dowey, Edward A., Jr. The Knowledge of God in Calvin's Theology.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5.
- Dunn, Samuel. The Best of John Calvin. Michigan : Baker Book
House, 1983.
- Ferre, Nels. F.S. A Theology for Christian Education. 이 정기역
기독교 교육신학. 보이스사, 1979.
- Fowler, James, W. Stages of Faith. Haper and Row, Publishers
Inc., 1981.
- Green, Jay, Calvinism; Yesterday, Today and Tomorrow. 정 성구 역.
칼빈주의. 어제. 오늘. 내일. 세종문화사, 1977.
- Holladay, William. L. A Concis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Leiden E.J. Brill, 1971.
- Hunter, A. Mitchell. The Teaching of Calvin. N.J. Westwood:
Fleming Revell Company, 1950.
- Hunter, David. R. Christian Education as Engagement. 엄 문용 역.
신학과 교육과의 만남. 서울 : 대한기독교 출판사, 1983.
- Nisel, Wilhelm. Die Theologie Cavlins. 이 종성 역. 칼빈의 신학.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73.
- Seymour, Jack L; Miller, Donald. E. Contemporary Approaches
Christian Education. 임 영금외. 오늘의 기독교 교육연구. 대
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 교육부, 1982.
- Sherrill, Lewis Joseph. The Gift of Power. The Macmillan Com-

- pany, 1963.
- Smart, James. The Teaching Ministry of the Church.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54.
- The International Standard Bible Encyclopaedia. Grand, Rapids Wm. B. Eardmans Pub. Co., 1974.
- Wendel, Francois. Calvin. 한국칼빈주의 연구원 편역. 칼빈의 신약서론. 칼빈총서①. 기독교문화협회, 1986.
- Wyckoff, D. Campbell. The Gospel and Christian Education. Philadelphia : The Westminster Press. 김 득렬 역. 복음과 기독교교육. 대한 기독교 교육협회, 1981.
- Zuck, Roy B. Spiritual Power in Your Teaching. 권 성수 역. 성령과 교육. 서울 : 한국 기독교 교육연구원, 1982.
- 강용원. “칼빈의 교육 활동과 그의의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장로회 신학대학 대학원, 1978.
- 고용수. “만남의 기독교 교육을 위한 커리큘럼의 기본구조.” 교회와 신학 (제 18집). 장로회 신학대학 출판부, 1986.
- 김남식편저. 칼빈주의 연구. 서울 : 백합 출판사, 1979.
- 김동호. “원죄를 통해서 본 기독교 교육의 대상으로서의 인간 이해.”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장로회 신학대학 대학원, 1982.
- 김수진. John Calvin의 교육사상연구. 을지사, 1986.

- 김이봉. 왜 신앙이 필요한가? 서울: 양서각, 1984.
- 김이태. “칼빈신학에 있어서 경건과 학문의 상관성 연구.” 교회와 신학 제XIII집. 장로회 신학대학 출판부, 1980.
- 김형태. 기독교 교육의 기초. 서울: 예장 총회 교육부, 1973.
- 노의일. “칼빈의 교육사상이 서구 근대사회 자본형성에 미친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교육대학원, 1974.
- 노종숙. “요한 칼빈의 인간이해.”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한국 신학대학 대학원, 1981.
- 문동환. “요한칼빈의 교육관.” 기독교 교육 7호. (1965.3) pp. 22-26.
- 버나드 앤더슨. The Unfolding drama of the Bible. 감신한국 선교교육 연구원역. 무엇을? 기독교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성광문화사, 1982.
- 석태운. “칼빈의 교육사상에 관한 일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 교육 대학원, 1977.
- 손대호. “인간 창조 이해 (창세기 2장 4^b ~ 24 중심으로).” 미간행석사학위논문. 장신대 대학원, 1984.
- 심은실. “칼빈의 교육사상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세종 대학 대학원, 1981.
- 오병세. “칼빈주의 교육관.” 김남식편. 칼빈주의 연구. 서울: 백합 출판사, 1972.
- 오인탁. “기독교 교육 인간학 서설.” 교회와 신학 제XIII집. 장

로회 신학대학 출판부, 1980.

오창학. “칼빈신학에 있어서의 인간회복.” 장로회 신학대학 대학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1974.

윤두호. “루터와 칼빈의 기독교 교육사상 비교 연구.” —인간관, 성서관, 교육관을 중심으로— 미간행석사학위논문. 장신대 대학원, 1979.

은준관, 변미정, 조은수, 김재은 공저. 어떻게? 기독교 교육방법을 중심으로. 서울:성광문화사, 1983.

이근삼. 칼빈·칼빈주의. 부산:고신대 출판부, 1972.

이상근. 옥중 서신 주해. 서울:예장 총회 교육부, 1982.

이성모. “칼빈의 인간해석과 근대 시민 사회.” 미간행석사학위논문. 연세대 대학원, 1961.

이수영. “인간 장 칼뱅” 교육교회. 제 106 권 84년 10월호. 장로회 신학대학 기독교 교육연구원, pp.655-660.

_____. “칼뱅” 빛과소금. 창간호 (1985.4), pp.104-106.

_____. “칼뱅의 인간론” 빛과 소금. 제 2호 (1985.5), pp.118-120.

_____. “칼뱅의 신앙론” 빛과 소금. 제 3호 (1985.6), pp.115-117.

이양호.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교회론.”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84.

이영희. “루터와 칼빈의 교육사상 비교 연구.” 미간행 석사학

- 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 대학원, 1971.
- 이용삼. “칼빈의 인간이해.”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연세대 연신
원, 1969.
- 이용원. “사상적 배경에 비추어 본 Calvin의 인간론.”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장신대 대학원, 1982.
- 이장식. 기독교 사상사. 제 2 권. 서울: 대한 기독교 서회, 1981.
_____. 기독교 신조사. 제 1 집. 서울: 컨클디아사, 1979.
- 이중성. 신학적 인간학. 서울: 대한 기독교 출판사, 1979.
_____. 칼빈. 서울: 대한 기독교 출판사, 1978.
- 이중성편. 칼빈서거 400주년 기념 논문집. 한국 칼빈 신학 연
구회, 1965.
- 이형기. “르네상스 인문주의에 비추어 본 칼빈에 있어서 인간
과 구원.” 이중성회갑논문. 장로회 신학대학, 1982.
_____. 宗教改革 神學思想. 루터와 칼빈을 中心하여. 장로회 신
학대학 출판부, 1984.
- 임창복. “기독교 교육과 신학.” 교회와 신학 제 18집. 서울:
장로회 신학대학 출판부, 1986. pp.232-259.
- 장성규. “요한 칼빈의 목회론.”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장신대 대
학원, 1977.
- 장화선. “John Calvin의 인간이해와 교육.” 미간행 석사학위논
문. 연세대 교육대학원, 1980.

- 전경연. 칼빈의 생애와 신학사상. 복음주의 신학총서 제 27 권.
서울: 한신대학 출판부, 1984.
- 정두섭. “교육신학의 관점에서 본 John Calvin의 제네바 개혁의 분석적 연구.” 미간행석사학위논문. 연세대 교육대학원, 1983.
- 정웅섭. 기독교 교육개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6.
- 정장복. “목회 현장을 위한 세례의 재인식.” 예배와 설교 핸드북. 서울: 양서각, 1986.
- 정정숙. 종교개혁자들의 교육사상. 서울: 총신대학 출판부, 1983.
_____. 기독교 교육 과정론.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교육부, 1980.
- 주선애. 성서와 생활, 교육 과정 지침. 서울: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 교육부, 1973.
- 최임선. 신앙의 발달과정. 교회교육교사 훈련시리즈 10. 종로서적, 1985.
- “칼빈.” 기독교 대백과 사전 제 14 권. pp.1104-1126. 기독교 문사, 1984.
- 한미라. “기독교 교육의 목적으로서의 구원.” 월간목회 제 121호 (1986.9), pp.78-85.
- 한상진. “듀이와 칼빈의 교육사상에 대한 인간학적 비교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연세대 교육대학원, 1982.
- 헌법개정위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부, 1984.
- 홍치모, 종교개혁사. 서울: 성광문화사, 1977.